東亞日報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民族運動과 社會運動 (下)

三

二、經濟的方面으로볼것가트면 비록 最近에보는지々는많々마다의饑饉問題는目論中에서제고생각한다할지라도 全體의破産인것은 일즉부터의우리의內的外的의實生活에서 明々히判明된바이니 此外가其慘憺한現狀을救急하는一方法으로하던지 또는 朝鮮社會에잇서 自然科學은 그程度의幼稚不幼稚를말할것업시 그形勝外지蕭凋하야진關係로經濟生活에對한知識이 너무缺如한것은說明을기다릴바아니나 이러한無知를根本的으로救治하는것은 元來容易한일이아니지마는 다만常識的으로만이라도 救濟하라는方法으로보던지 또는 그만한常識이라도엇게된다면 그는將來社會의建築에잇서有助할것을생각한다던지할것갓흐면 勿論中產者的立地에서의民族運動이有理한것이아니라할수업다 그러나前回에서도말한것가치 中產者的主張가根本에서묻어지게된以上에는 이것을企待하는것은 恰然히樂者로서聽樂을願하는것과갓흔일이오 뿐만아니라 慘憺한現狀을救濟하는道理는 오즉根本問題로歸着하고마는것을 學理와事實에서발길것가트면 經濟的으로본民族運動도 結局 그思想에서의轉換機가이게될것을알수잇다

四

三、時代思潮로보면 일즉世界大戰亂이終結된뒤에 民主義의萌芽에서發展되엿던歐洲戰亂이終結된뒤에 國際主義가世界的으로澎湃하엿스나 그러나 이國際主義는如前히二大潮流로相聯하야 하나는莫斯科를中心으로한無產階級의그것이되엿고 다른하나는巴里를中心으로한資本國家의그것이되엿는바 後者에잇서서는 熱病人이譫語하는것과가튼場面을一時做出하엿다가 解熱될을따라 一旦狀이回復되엿슬뿐아니라 國富增進 實力養成이라는 各國本軍國의資本主義를 各히高調하야말지아니한다 그러나 이것도現世界에잇서 儼然한潮流의하나이라할수잇스니 이에서우리의微弱無實力한것을도라본다하면 비록 저와가튼軍國的資力은不能이라할지라도 그러하어느程度의實力養成은必要한것으로생각되는것이다 그런즉이것이 必要한것인지는 알지못하되 만일必要한것으로본다하면 勿論朝鮮形便에잇서서는 中產者的立地에서의民族運動이 저러한思潮에는應하는것으로볼수잇다 그러나實力養成의能不能은別問題로하고 이思潮는 新思潮가아닌것만큼 우리의革新運動과는背馳되는것은 數言을費할餘地도업는것이며 그리하고 우에말한바世界的으로擴大되고잇는國際主義그대로한世界的潮流는 우리의處地로보면 朝鮮人이海外에分布된形相과또는地理的關係로보아 현만아니라 現代의 改革思潮는 十九世紀的民主思想으로의그것이아니오 反히이思想에對立하는것을發見할것갓흐면 朝鮮의民族運動은 必然的으로 그方向이轉換될것을料測할수잇다

五

要컨대 政治的으로經濟的으로것는 社會的으로生活의破壞되게된社會에잇서 實力養成의餘裕가잇지못하는것이며 實力養成의餘裕를엇지못하는以上 中產社會의振興은 到底히企望할수업는것일뿐아니라 이우에 理想的關係와時代的思潮는 더욱 우리의運動의方向에對하야 正確한羅盤針이되고잇스니 이에서 우리의態度는如何히決定하는것이可한가하는問題가 判明되엿다할수잇다 그러나 우리의生活運動의方向이 엇의 二大陣營으로分野된氣運이磅礴하야지엇다할것갓흐면 아즉組織的으로의엇더한運動도具體的으로出現되지아니한今日에잇서 民族運動이具體的形式으로出來하는것도 그將來에잇서 그思想이轉換할것을前提로하야 利執할必要가업는것으로안다 그리하고 社會運動이具體的形式을가추와이러나는것은 外的事實로보아 現在에잇서서는 可能할것은 斷定키어려우나 民族運動에잇서서는 그럿치도아니할것으로 생각되는同時에 民族運動이일어나게되면 初期에잇서서는 저들에게는經濟能力에잇서 比較的어느程度의可能이잇슬것이오 또運動이進展될을따라 우에말한바와가치 思想上의轉換이생길것은 三一運動以後에 海外又는海內에잇슴을莫論하고 眞正한民族運動을行하는者들의 現在의所持한思想은大體로보아左傾하엿다할수잇는것으로만 보아도 밋을수잇는것은非實로안다 그럼으로 現在朝鮮社會와갓흔 우리의微弱孤弱한것이두運動사이에는 그러큰溝渠가잇지아니할가한다 그러나民族運動의將來는大勢로보아思想上의轉換機가잇슬것이 그의判明되는以上 그의新出發에잇서 그方面으로의集中統一을圖하야 또는勢力의朝鮮社會를爲하야 絕對企望할바임에 따라 우리는 저들로하야금 그러케되도록企待하야마지아니한다(完)

葡國新內閣成立

葡萄牙에서는드망、산토스는內閣이成立하엿더라(불드二十二日發)

墺國의對外策聲明

墺國外相「마타야」氏는前「사이펠」內閣의對外政策을踏襲할意를明하엿더라(불드二十二日發)

土耳其의後繼內閣

土耳古는「이스멧트」內閣은辭職하고「레지베」氏가後繼內閣組織을引受하엿더라(불드二十二日發)

新嘉坡軍港建設

「데일리메일」紙의報道에依하면英國新嘉坡軍港建設問題는不日倫敦閣議에서決定되리라더라(나웰二十二日發)

英獨通商條約交涉

英獨通商條約交涉은二十四日倫敦에서開會한다더라(나웰二十一日。)

第二軍縮과日本

米國大統領「쿨리지」氏는近間華府에서第二次軍縮會議를開催하리라고傳하는바畢境補助艦制限을附議하리라는故로日本當局者는廣大한海面을有하는特殊關係上主力艦五、五、三의比率을補助艦에適用하자는提議가有하야提出되면斷然히反對하리라더라(東京電)

日獨通商 條約交涉開始

日獨通商條約締結에關한正式交涉은來週月曜日에(二十四日?)開始할터이든바外交省은于九百十一年通商條約下에有効한諸條項을復活하야最惠國條款을加할目的으로本田大使와「쿠리츠끼」博士가日獨兩國代表로交涉하리라더라(伯林二十二日發)

英露協約 調印拒絕

英國外務大臣「채임버레인」氏는勞農代表「라코우스키」氏에게 英露條約에調印치아니하겟다하며「지노비에프」의英國共產黨에送한書翰을翻聘한다고認定할으로前內閣이締結한英露協約에調印키어렵다고通告하엿더라

再開可能觀測

(倫敦二十二日發) 倫敦諸新聞은外相「체임버레인」氏의對露公文에對하야 一般이承認하는旨를表하얏다 英國新聞界一部에서는英露通商關係의再開는아직可能性이잇다하더라(倫敦二十二日發)

帝國主義反對에 露勞働同盟同情

會員一萬二千이되는露國化學勞働同盟은長文電報를發하야帝國主義的勢力을反하며中國人民의自由를獲得하기爲하야奮鬪하는中國化學勞働者에게同情한다고言明하엿고또五十萬會員으로成立된敎員同盟도中國에電

學藝欄 偉大한墳墓

◇葬의種類에 土葬、火葬、水葬、風葬、鳥葬等區別이만흔것과가치 墳墓의種類도 土饅頭에그치지아니한다 墳墓의構造와規模가 千差萬別이라 一々히說明할수업스나 그中에 큰墳墓에 關한例나 몃개들어말하려한다

◇明太祖의孝陵이나 明成祖의長陵가든陵을본사람이면 長陵이라는陵字에合當하게 그것을왜말엇을것이며 長陵은 陵墓外지十五淸里라하니 그것으로世界第一이라하다

◇印度「아무라」市에잇는 美國한建築으로는 世界에有名하니 그墓를 今日物價로計算하면 적어도二億圓에達하리라하며 日本仁德天皇의 百舌鳥耳原中陵은 東西三百間 南北四百間 總面積十萬坪이라하니 廣大하기로世界的이다

◇漢武帝는 文武兼全한英雄이나 우리朝鮮人外지 이놈對揆하고하도록 惡을한代的이된人物이라 後人의發掘이두려워서 已陵山을 滄河水底에定하고 墳墓하는係被的可墓外지設置하엿다는데 淸乾隆時에 激父의被蔽가非端이되야 究竟發掘되엇다하며「훈」族의首領「아틸라」는 西紀五世紀에 歐洲를蹂躪하야 그의말발굽지나는곳엔 풀도나지안는다고 歐洲人이무서워하든英雄인데 그의屍體는三重棺에너허서 어느河水中에埋葬하엿다는傳說이잇더니 年前匈牙利「아라큰」河邊床에서大墳墓를發見하야 이것을「아틸라」의墳墓라고學者들이말하엿다

◇埃及은 世界에有名한이외에도數多하나 世界의인中에가장큰墳墓는 埃及의金字塔이라할것이니 이것은지금부터約五千年前 埃及王第四(케오프스, Kheops)가建築한것으로 이塔에對하야는 天文學的知識을應用하야構造한一種大天文臺라고 說明도잇고 人民의遊衣遊食하는者를勞働시키느라고計劃한建築이라고 政治家의推測도잇고 「노아」大洪水의紀念碑라 大陽과神火의 代表物이라 「바벨」塔과類似한것이라 「노아」洪水前三百年時代「사우리드」王이洪水避難으로建築하엿다는 學說도잇스나 墳墓인것이 確實하다

◇塔의形狀은正方錐形이니 高가四百八十四尺이요 底面長이七百七十八尺이요 斜面이約五十一度五十分角度요 塔의上頂은尖形이아니오臺形이니 그面은勿論正方形인데 邊長이三十二尺이라 百人을容納할만하고 石材는 大小不均하나 縱橫이四尺一寸이오 厚가二尺二寸이오 重이四萬兩인데 總數가約二百三十萬個이오 總積이約七千萬立方尺이라한다

◇塔에關하야 가장오래된記事는 「헤로도터스」의記錄이니 그가장오래고가장자세한것이니 「헤로도터스」의說함을보건대 이塔을建築함에 使役한人夫가三十萬이니 十萬으로三組에分하야 三個月만큼식交代하야 石材運搬道路工事에十年 塔工事에二十年이걸리엇다는데 人夫의먹은무、파、마늘等屬의代價만하야도千六百달렌트(約二百萬圓)이라하고 現代土木技師의計算을보면 現今과가치機械發達한時代에도 이工事를竣功하자면 一千名工夫와五十年日字가必要하다한다 이러케偉大한建築이 곳一個墳墓이다

段出盧通電

(北京廿二日發) 段祺瑞氏는昨夜에大要如左한通電을發하엿다 나는오래동안天津에隱遁하든바 ...이다이論爭이完了되면은나의責任은終了된것이다云云(天津電)

今後의中國政界 段氏入京으로一時는收拾

今後時局은如何히轉回할지段氏入京으로一時時局은收拾되엿더라도 四圍事情으로보면南北의大勢는未須遼한것이다 吳氏의洛陽到着과長江聯盟의吳氏擁立과맛々한國際의南方援助는途大派의始治하야段氏를中心삼은北方派에서는大打擊일것이다 吳氏의討伐令은發佈할必要로段氏의入京과中央政府의正式樹立은一日이라도빨니實現할必要가잇서定期日을變更한것이다 段氏入京과함께新政府가成立되더라도무엇보다도金錢이되지안으면中國政府는어렵다 段氏는今日外지도生活의一部를張氏補助로하여왓슨즉今後에도張氏는段氏의資本主가되야一時的時局을收拾될것이나張氏도永久援助는할수업슬지며元來張氏는段氏擁立이目的이아니요吳佩孚氏討伐이主眼인즉段氏는一媒介物로使用되야段氏를中央에서完全히失脚하고 長江一帶를征服하야直隸、山東에勢力을伸張하면滿足하게되야張段方策도變하며時期에當하야 馮玉祥氏를討伐하야中國南北을統一할것이다 그러나張氏의總統王永江氏가張氏에게길흔關係를結할것인즉今後時局은如何히轉回할지逆睹키어렵다

全國會議 召集通電

段祺瑞氏는北京에入함과同時에臨時執政就任과臨時政府組織에關하야如左한通電을發하얏다 一、一月以內에全國會議를召集하야時局의紛糾를解決할것 二、三月以內에國民會議를召集하야根本大法을解決하고合議成立과함께나는辭職하고再次野한다云々(北京電)

日會議地變更提議 카라한氏는反對

幣原外相은芳澤公使가中國問題에關하야對露交涉을莫斯科에옴겨委員을特派하야直接勞農政府와交涉하기를提議하엿스나「카라한」氏는前回「카라한」氏와私的交涉에서 이를拒絕하엿고「카라한」氏는目下會議地點을變更함은交涉을遲延케하는것이라反對하엿더라(北京二十二日發)

北京外交團態度 段氏執政政府承認內定

北京外交團은段祺瑞氏의執政內閣組織에對하야同政府가現存條約을尊重한다는一의條件으로하면此를承認키로決定하야近日外交團會議를열고條約履行을要求하는共同通牒을보내리라더라(北京二十二日發)

一千萬元借款 京綏線을擔保로

中國政府는京綏線을擔保로하고米國에서一千萬元을借款調印하엿더라(北京二十二日發)

五國은段氏援助

日、英、米、佛、伊五國은北京에서協議하고中國의政治的秩序를回復하기爲하야段氏를援助하기로決定하고目下政治的形勢를安定하리라고

三巨頭의入京

馮玉祥氏는段祺瑞氏와前後하야二十二日午後四時에入京한바張作霖氏는二十四日入京하리라더라(北京二十二日發)

張作霖歸奉期

中國側報道에依하면張作霖氏는段祺瑞氏와함께入京하야吳佩孚討伐을盧永祥氏에게一任하고十二月中外지는歸奉할터이라하며張氏는「카라한」氏와會見하고奉天에開催될露支交涉을北京의中露交涉에統括하야交涉하리라더라(奉天二十二日發)

某國義勇兵 手當問題로紛爭

奉直戰에張宗昌軍下에서奮戰한某國義勇兵四十餘名은最近解散되야各手當三百元의支給을반게되야各手當의支給을要求하고紛爭中이라더라

스總督暗殺 嫌疑者檢擧

「스탁크」少將暗殺嫌疑者는三十六名으로「카이로」에서檢擧된바犯人은判明되지아니하고今回暗殺에는英國의反響이非常하야英國의全權中「알넨비」卿의命令을밧앗다더라(나웰二十一日發)

有害藥取締會 日本은調印拒絕?

有害藥品取締에關한各國會議는二十二日開催케되엿는바討議基礎로上提된七案中其一을採用하리라

問題書面은眞物 英外相聲明

英國外相「채임버레인」氏는駐英露國代表「라코우스키」氏에게公文을보내여 最近問題된「지노비에프」書面이眞物인것을確言하엿더라(倫敦二十一日發)

英外相佛訪問

「데일리메일」紙報에依하면新英國外相「채임버레인」氏는十二月八日國際聯盟理事會에出席次로巴里에들러佛首相과會見할터이라더라(나웰二十二日發)

五十萬磅要求

英國의「스탁크」暗殺事件에對하야五十萬磅의賠償金을要求하고政治的示威運動禁壓을要求하엿다더라(카이로二十一日發)

段氏北京到着光景

段祺瑞氏는二十二日午前九時天津發特別列車로午後二時四十分北京에到着하엿는바停車場에는各大官과各國代表가出迎하엿더라

吳佩孚氏洛陽到着

吳佩孚氏는二十日朝漢口發로洛陽에到着하엿다는報導가잇는바漢口滯在中의吳氏의兵은一時에漢口를떠나江西에捲起하는形勢라더라(東京電)

盧永祥氏는南下할듯

盧永祥氏는濟南에到着하야南下할形勢가잇서이것을防備키爲하야陳調元氏는部下江蘇第五混成旅兵約三千名을二十一日朝八時浦口로부터津浦鐵道로徐州에向하엿더라(北京廿一日發)

中新閣員 段氏就任後任命

臨時政府는段祺瑞氏가國務總理를兼하기로決定하엿다는바閣員人物은如左하야二十四日段氏就任同時에任命하리라더라

◆內務總長未定 ◆外交總長王正廷 ◆敎育總長王九齡 ◆陸軍總長吳光新 ◆海軍總長林建章 ◆司法總長章士釗 ◆交通總長葉恭綽 ◆財政總長李思浩 ◆農商總長楊庶堪

閣員無變動

段祺瑞氏는執政한後에도從來閣員은如前하다는바二十四日入京하야新內閣人物에는變動이업슬이라더라(東京電)

日本勞働黨具體化

日艦天津撤退

(奉天二十二日發)

吳氏手兵의護衛

護憲軍政府組織如何

(天津二十一日發)

唐紹儀氏北京에

(北京二十二日發)

徐樹錚氏渡歐

(上海二十二日發)

奉軍糧食輸送 天津方面에

(廣東二十一日發)

大朝記者射殺?

(奉天二十二日發)

軍事教育 反對運動

陸軍省에陳情

憲政會安達氏 濱口藏相訪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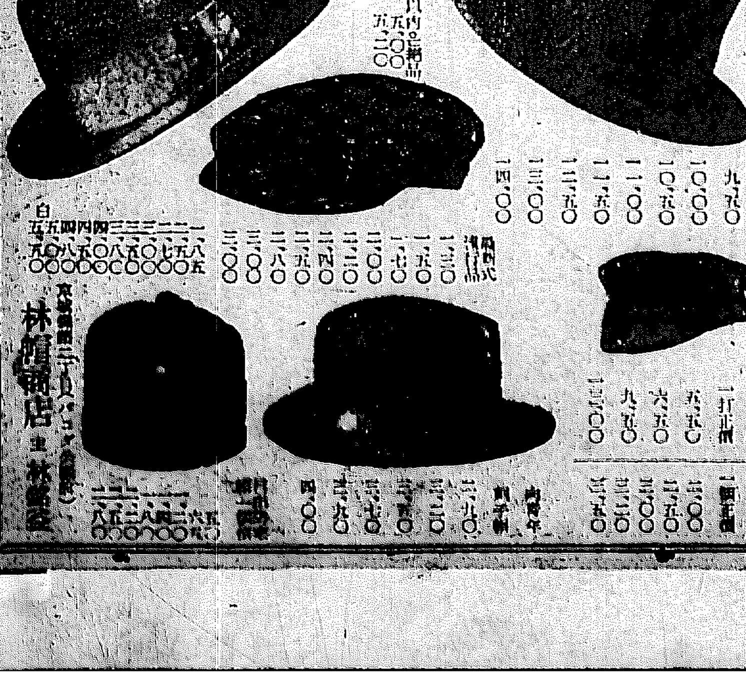
在外正貨激減

電信線障害復舊

消息

橫說竪說

今日本紙六面



◎新舊書籍을特別大々廉價로一個月間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
總發賣所 京城書館 新明書林

人生處世 法律要鑑
全一冊定價金六十錢 送料(先金)

短篇集 小說 慘敗者
孤帆 李瑞求 作
◎新刊書籍十二大奇書가今日出來!

◇눈은오다! =작일삼청동에서=

京城初雪

작일새벽 다섯시반부터 자최업시나리는 평화로운 눈발은 금년에 이르러서는 처음보는 큰눈으로 작일오후한시반까지에 싸힌눈은 총우량이 매평에 대하야 두미리가량이 되며 측후소(測候所)창설이후십칠년이래로 이가튼적설(積雪)은 금년 이것으로 처음이된다하며 이것을평년(平年)에 비하면 열일곱동안과 또한 작년에 비하면 열흘동안이 일느다는데 이눈이 개인뒤에는 일긔가 매우 치워질터이며 이번눈은 중부(中部)조선에만 히온모양이라더라

開城에도尺雪

개성(開城)군에도 작일새벽부터 눈이퍼붓기시작하야 동일정오까지 거의반자가량의 적설이되엿다더라

新義州에尺雪

녹으며온것이한자

지난삼십일아침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이튼날까지 계속하야 큰비가왓스며 이십일 정오부터는 눈으로변하야 밤까지내리며 뒤에 눈이라 녹으면온것이 약일척에 달하야 교통이 매우불편하다더라(신의주)

仁川에도初雪

이십삼일새벽부터 작이십삼일새벽네시쯤부터 아홉시까지 인천일대에는 복화송이갓흔눈이 한평에이삼『미리』가량이나리엿다더라(인천)

首犯林昌植被捉과 發覺된大規模의赤化結社

◇중국중동연선에설치된 해삼위공산당의조선별동대
◇위선조선부터착수하려고 주요간부를뜬일

西大門署事件의眞相

서대문서의김형준(金炯俊)사건은 일견에 평북구성(平北龜城)으로부터 림창식(林昌植)을 데포하여온뒤로 여러가지화흥한증거를 붓잡게되엿스며 또취조도 매우진척이되야 동서에서는 새로활동을개시하야 다방면으로 활동을계속하는중인데 이제자세한내막을 듯건대 실상 김형준은 그러큰 중요한인물이아니고 각디에련락을 취하려단닌것에 불과하며 참말 이사건의수령은 림창식인데 그사람의입으로 놀날만한 재외동포의실정이 탈로되엿다

그것은 만주(滿洲)와 서백리아(西伯利亞)에 흐터져잇는 우리동포들이 중동철도(中東鐵道)의 연선되는 ○○라는 큰도회에 해삼위공산당(海參威共產黨)의 별동대가튼 큰결사를 조직하야 거긔에 본부를두고 남북만주와 로령상해등디의 중요도시에 지부를설치하야 적화운동(赤化運動)에 종사하는것인데 당원으로는 로서아사람과 중국사람들도 다수히석겨잇다하며 그운동하는방법이 매우 교묘하야 본부를위시하야 각지부에서 당원들이모혀 토디를개척하야가지고 거긔에 아편(阿片)을심어 그것을 중국각디관리들에게넘겨 상해(上海)봉텬(奉天)북경(北京)등디에 밀수출하야 그수입된돈으로 당의유지비를삼으며 한편으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자금을 조달하는터인데 이해문에 경작하는토디가 본지부를합하야 몃천일경에 달한다하며 그수확금액도 만히된다는데

阿片耕作으로基金

경디면적도수십여만평

고 이사업은하여왓슴으로 인제는토대가 확립하야 착착성공하여감으로 이뒤로는 최초의

國民會幹部로活動

삼일운동때는동신긔관조직

권긔림창식『옴스크』니『빠이스해』외디로 다니며 만히활동하엿스며 그후 삼일운동(三一運動)때에는 유력한통신긔관(通信機關)을조직하여가지고 만히 공로를쌋컷다 하는바 그곳국민회(國民會)(상해림시정부에서 개최한 국민대회와는 다른것인데 그곳은그곳에재류하는동포의 자치긔관이다)의 중요간부로잇스면서 일즉부터 민족운동에 만히헌신하엿는바 원래림은 일한합병(日韓合倂)뒤 그해를 보고 륭희이년(隆熙二年)에 그국을 떠나 본토로부터 림이외에 여러당원들이 무긔를가지고 조선안에드러와 활동하엿스나 도모지말할수 업다더라

만긔는 평북구성(平北龜城)에본거를두엇다가 그곳에서 잡히는바람에 데포된것인데

朝鮮總部

귀성에두어

그결사에서는 별서여러해를두고 진행하는데 차에무참히처며 즉엇는데 원인은 [illegible]

冷酷한平原郡當局

궁민에대한보고는무엇?

평남평원군 서해면(平原郡西海面)의 귀곤민약이백여명이 최후의일책으로 수일전에 강원도철원군(鐵原郡)을향하야 떠나갓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에대하야 요사이에 평원군청으로부터 평안남도청에 보고한내용을 보면 긔곤민구제의 공익농장(不二農場)개척에 대하야 금년구월 상순경에 이민모집(移民募集)의 통첩이 왓는데 그후그곳으로 이주(移住)하여 가지원하는자가 서해면안에 달하얏스나

東京學友總會

관비생문데로

한동안매우분분

동경학우회(東京學友會)예산총회는 재작일오후 일곱시부터 『스고는홀』에서 열리엿는데 련보다도 다수참석하엿스며 먼저예산안을 통과식힌후 그다음 동포위문금에 대하야는 동회에서 취급하기로하고 처분방법은 간부회(幹部會)에서 구더안을 만드러가지고 오는총회에 데출하기로 결뎡되엿다 그곳에 계명치본에 관한말이나자 간부측으로부터 고등공업학교(高等工業學校)총회폭행사건의 진상을설명하게되야 지나간십오일 총회가열렷슬때에 관비문데가 나가지고 서로의견이 충돌되야 관비생측은 완력으로써 네명의학생들도 역시관비생과 한가지로 인뎡하엿고 경미하엿다더라(동경특뎐)

街上의初冬 (三)

◇줄선집◇

◇....해는서편멀어로 써서리지고 어둠의물결이덥처올때에 모-든생물은 원종일피로한 몸을질질끌면서 안식을머리에 그리고 자긔보금자리로 도라간다

◇....종일토록쌔가 빠지도록애써서 어든 삭권을들고 자긔집으로도라가는 노동자들로 한숨석근깃봄이 가슴에서솟아나기를는지도모르겟다

◇....그러나자긔집으로도라간때에 원종일 사람으로서못할 할농열파 악착스럽개도 화대를바든그만흔품삭을 풀려주기는커녕 쓸다란햇낭방석컴컴한어둠속에서 복작이는커자와 누덕이의내음새가 코를씨르리라 하야먼저 취할길을 돌리는곳이 커-다란 술집이다

◇....그들은 그리하야 술구기잡은괄보의눈옷김과 이룸쌍우에쇠뎅을거리는 홀모양으로 아무캐나던커주는 그의음칭이라 도드를수잇는것과 그래도 취흥(醉興)과술친구와 하소연하는 그맛으로 커선술집에서 피무든그돈을 바바굴거버리고만다

◇....한잔두잔먹으면서 방아라한마디를 건드리거리고 그 조리퍼마다 주름살힌 그네의 얼굴에는 디시업는 즐거움이어린듯하얏다 이것이 쓸쓸한 겨울 바람에 여린들려워지는 그네의써 수한즐거움이엇다

◇....어둠은컴컴지펴가고 바람은쉴쌀쌀할뿐 긴등불아래에서는 우숨 소레와 중얼거리는 소래가 곳칠줄을 모른다

群妾爭艶

[illegible] 가진행하는긔차에무참히처며 즉엇는데 원인은 [illegible] 희(理事會)를개최하고 여러가지 더욱확상하는 동시에 서재문외 아현리(阿峴里)이백팔십일

妓家에强盜

생리평우(李平雨)은 지난십구일오후밤시경 친주권반(晉州券番)에 번을든나가고 그형당수 [illegible] 를결박하야 골방에가두운후 이붕한채와 무명베한필을 강탈하여 자주[illegible]

大韓獨立團員

박천서에피착

평안북도 박천군덕안면 남오동(博川郡德安面南五洞)에원적을둔 박승무(朴勝武)(三)는 얼마전 박천경찰서에 데포되야 방금취조중인데 이사건의 내용인즉 박승무는 긔미년독립운동 당시에 대한독립단 부총재박민호(朴民浩)의명령을바더 동지강규록(康奎祿)과 김승학(金承學)등과가치 박민호의 발행한 대한독립단 사령장을 동군동면석화동(東面石花洞)뎡석주(鄭錫疇)에게교부하고 동신원사령장은 뎡지원(鄭志源)에게교부하고 부단동사령장은 어명성(魚命聖)에게교부하야 주밀한련락을취하고 북간도 관뎐현(寬甸縣)으로건너가 동지조용하(趙用河)외오륙명과 가치 군자금을모집할목뎍으로 대정구년에 조선으로 들어와서 평안남도 개천(价川)등디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가지고 다시북간도로 건너갓다가 이번에 비밀히귀향한것을 데포한것이라더라(박천)

朝鮮食料品 世界市場에紹介한

米國商科大學出身柳一衡氏

수일전、미국으로부터입경

일전에 미국으로부터 명사류일형(柳一衡)씨가 입경하야 지금 조선호텔에 데재중인데 씨는 여러해전에 중국 길림(吉林)디방에 이주하엿다가 미국에건너가 『마쉬간』대학상과(大學商科)에드러가 다년상학을 전심연구하다가 졸업한뒤에 세계시장에 조선상품을 소개코저 『벽유』로이트시에서 조선간과숙주나물을 팔기시작하야 마춤내 큰리익을 어더 얼마전에 그사업을 주식회사(株式會社)로 조직변경하여가지고 온아메리카식료품계에 만흔환영을 바다오든터인데 그회사의주주도 대부분이 미국사람들인데 장래도매우 유망한사업이라하며 간장가튼 조선식료품을 세계시장에 소개하게된은 씨가 처음이라더라

그들은 모다극빈자로 아참거녁 먹을것이업서서 일을하야 상당한자력(資力)이 업서서 이주하지못한다고 국경을넘어 간장의 [illegible] 덩지하엿스되 그외로 [illegible] 이주민중 의십호(十戶) 농장에서도 지금의 형편으로는 [illegible] 가서도살아 갈길이업는 모양이며 그중에 [illegible] 는소위 군당국자로서 그가튼이 [illegible] 더라(평양)

알면서도

[illegible] 붙이 농장에하 여 [illegible] 가서도 수용이되지 못할줄을 [illegible] 떠나가는 귀곤만에게 군당국으로서아모 처국덕원조가업시 너머래흑한것과 그들이 텰원군에 [illegible] 나가지말나는 권고와 또는 [illegible] 라더라(평양)

金麗植博士

정치학을연구

『와싱톤』 미국대학에서 정치학(政治學)을맛치고 한국과 북미합중국의관계(韓國과北米合衆國의關係)란 론문(論文)을데출하야 철학(哲學)박사호를 어더가지고 수일전에입경한 김려식(金麗植)(三)씨는 지금 권동려관(典洞旅館)에 투숙중이라는데 씨는지금으로부터 십사년전에 중국(中國)에건너가서 수년을지내인후에 또다시미국(米國)으로 건너가서 『오와이오』주립대학(州立大學)에 입학하야 박사호를엇고 또다시 콘커미국대학에서 철학박사까지 엇게된것이라더라(사진은 김려식씨)

一家八名을慘殺

일본에서생긴일

작일아참네시경 일본명고옥시 중구입강뎡(日本名古屋市中區入江町)에 예기영업(藝妓營業) 수곡경태랑(水谷京太郎)의 집에 별안간괴한한명이 뛰여드러와 주인경태랑과 커금자(今子)(?)장남민남(敏男)(?)에기옥랑(玉)... 매노(梅)... 천접(千蝶)... [illegible] 등을 전부참살하고 도주하엿다더라

◇米國의音樂演說을日本서座聽◇

태평양을사이에거리는사천오백마일

근자에 과학(科學)의진보가 비상하야 것잡을수를모르고 나날이발달되여가는과학(科學)의경로는 [illegible] 이나지아니하야 『라디오』의 [illegible] 연주회(演奏會)와 [illegible] 는 [illegible] 대판(大阪)에서 [illegible] 미국에서 [illegible] 지난이십일 오후 [illegible] 라더라

魔窟中의一美人

뜻업는매음을하다못하야

마굴을써나다가다시잡혀

근래 녀자들이 [illegible] 에팔니여 기생이나 창기노릇을 억지로하는 녀자들이 [illegible] 배반하고 어데로 [illegible] 은경찰서에와서 하소연하는 [illegible] 등양이 [illegible] 재작일오후에도 시내 [illegible] 노(奴)(三)사자(赤子)(三)광차(光次)(三)등 며명이 [illegible] 로써어죽이고 도망하야 바닷다 [illegible] 라더라(경성)

軍隊에不敬文書

일본군대에불경문서를보내

범인은오년징역을불복공소

解禁된不敬事件內容

일본갑부시(日本甲府市)보병데 [illegible] 련대에 불경문서를 보냇다는 사건은 그간 게재금지중이던바 재작일해금 되엿는데 사건의 내용인즉 지나간구월 [illegible] 범인에대한 긔사는 [illegible] 하사구십여인에게 대하야 황실에 관한 불경문자와 런대간부를 협박하는 불온문자를 라렬한 편지를 보낸자가 잇섯슴으로 련대에서는 [illegible] 뎡(甲府市連雀町)에사는 삼치 금조(三枝金助)(三)라는 남자의소위임이 판명됨으로 즉시 데포하야 갑부디 방재판소로넘긴후 지난달오일 불경죄와 협박죄로 오년의 징역선고를하엿는데 범인은 불복하고 동경(東京)공소원에 공소하야 목하심리중이라더라(동경뎐)

龍山에橫行하든 强盜團一網打盡

네명으로조직된룡산강도단

룡산서의활동으로전부피착

지난달오일 오전두시에 시내원뎡(元町)일뎡목이십칠번디 잡화상하는 미천팔십팔(尾川八十八)의집에 강도가침입하야 현금을강탈하여간 사실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이범인을 데포하기위하야 룡산경찰서에서는 밤마다 밀행반(密行班)을 조직하야 수색하든중 이십삼일오전네시 고시뎡(古市町)에서 강도단네명을 전부데포하고 취조하는중인데 범인의 주소성명은 아래와갓더라

平南平壤新倉里 李昌植(三)
平北定州伊彦面方川里 竊盜前科二犯 金炳山(三)
京畿道振威郡 盧□敎(二三)
住所不定 宋漢植(三十)

漢江通에怪漢

◇붙잡포와단도◇

데포단서는이로부터 룡산방면을 횡행하든 전긔네명의강도단이 전부데포된경로를 듯건대 지난이십일 오후아홉시경에 부내한강통십일번디 미곡상하는 장승식(張承植)의집에 곡상하는 장승식(張承植)의집 [illegible]

團長은金炳山

네명으로조직되엿

상습범을 데포하고 엄중히취조한결과 김병산(金炳山)(三)이 단장이되야 리창식(李昌植)(三)로국현(盧國鉉)(三) 등과 조직되엿다는것이 판명되야 다시 수색한결과 권원을 불어 수색하는 그가치잡히지아니하고 [illegible] 것이라더라

共同便所에一名

위생하비(?) 요대로

[illegible] 도주한자는 강도사건과 관련하야 [illegible] 한자는 [illegible] 송한식(宋漢植)(三)이라는 강도

塵柳에拳銃短刀

경찰은비상경계

이상의범인들은 룡산서에서 [illegible] 부삼(寶蔘)(?) 자 [illegible] 아한강통의 [illegible] 것(?)희(?)의 [illegible] 는데 쓰레기통속에서 [illegible] 으로부터 [illegible] 하야 [illegible]

◇네명의강도◇

상하우로 로국현 리창식 송한식 김병산

◇휴지통

◆함경북도명천군에 동내에서는 한사람이 맘을빌케 되자 멋진후 덕시그동내에사는 또한사람은 뚝가튼말을 갓게되매 자연서로 밤칭이라 나가지고 맛참내그곳 경찰서에고소하엿다 ◆이고소를맛튼경찰관의 커분은드르면 참말요절할일이지 너에들이 그럼케ㅅ닷로것업시 아조 공평하게 제비를뽑아서 결뎡하라고 하엿다던가 그경관나리는 아마큰 이든게야 그럿키에 뭉지에잡지를 탈도록 유로업시만드리노 흐범혹을 도외시하고 모든것을 턴명에 맛기라고 하는게지 이왕이면 조문속에다가 말소송을 제비를 뽑아뎡하라는 조문하나끔너어두면 엇덜고

本商會의光榮

朝鮮體育會指定

第五回全朝鮮野球大會使用球

全鮮基督敎靑年聯合會蹴球大會指定

第一回全鮮聯合蹴球大會使用球

—【品質堅實은大會가證明】—

蹴球 野球 庭球

朝鮮뽀-리볼商會

運動具製造販賣部

消瘡紫金丹

九轉靈砂藥房

主 李鎬廷

朴德裕洋靴店

過去二十餘年에信用을 一層注意를徹底케하야 最高級洋靴를 廉價로 提供하나이다

태양됴경환

胎養調經丸

효험으로유명한 婦人靈藥

결심코 잡수시는부인이 행복의부인이외다

이세부터시작하야잡수시면모든병은 물론이요 외가병에고생하시는이며 잔수는그납노부터 삼아지서 저-밥양의봄날과갓치되오리다 결심코잡수십에서행복이돌아오나니 저절한이쌔에단행하시요

■주치효능

부인의월경불순、월경통

월경시요통、두통、하복통、비통

부시동통、수족냉、자궁병

의모든증세를치료하야주며

케、며、수대효력이라

◆약가

한제에 오원

和平堂藥房 李應善

朝鮮婦人과讀書

―一凡生―

朝鮮에限한問題가아니라 오날날에이르러서는全世界의最大問題中하나는 말할것도업시婦人問題가그中하나이다 婦人問題이것이적어도 全人類의半數를點하고잇는以上現代의모든生活問題의半分을차지한큰問題오 文化의休戚에關係되는事實이다

勿論 그骨子로말하면經濟上獨立과社會上地位的平等과政治上均一한發言權等이重要한問題의內容이되겟지만은 이러한問題를解決하고現在의不合當한實際를改善하야人類本來의生活自體를實現함에는秩序가잇고先後가잇는것이다 그成功에는크면 큰그만큼準備가잇고努力이잇스며 적으면적은그만큼準備와努力이잇는것이다 堅實한基礎가업는곳에 完全한家屋을세울수업는것이眞理인同時에基礎가든든하면 집이설時機는업지아니한것이다

婦人의解放에는여러가지基礎가必要하다 그러나 그모든準備와基礎의第一步는知識이오理解力이다 知識이업는곳에理解力이發達할수업고 理解力이充實하지못한곳에解放運動이成功할수잇스랴 勿論一方으로보면知識이업는것이今日朝鮮의婦人이當하는虐待의原因이지만은 知識을더發展식히지아니하는것이 잇는故로婦人은恒常從來의地位와虐待에서 벗어나지아니할수가업다고하리라 그럼으로 우리朝鮮에서도다른社會와갓치그婦人들이解放을바라면먼저그拘束에서解放을밧지아니하면到底히目下의地位를免할수가업다고할것이다 나도그러한理論을是認한다 다시말할것도업다 오날날拘束을受하는모든大衆의處地는 그네들이向上을하지아니하는것이아니라 向上을하지못하게하는制度와組織이얼마나만히 妨害를하고잇는것도 나는是認하노라 그러나 今日의形便에서向上을하라고하는것이無理인줄도안다 그러나 그런理由는現狀에서超脫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을아는同時에 現狀에서解放을바라는運動에對한準備가必要하다는것이다 解放이라는것은決着되는것이아니라면婦人問題는同時에準備的努力이必要하다는것을確信하는同時에 解放에必要한準備的努力을부르지지고다는것이다 解放을부르지짐에必要한準備的努力을實行하지아니하면 이것은알이업는空氣球다 그것에서무엇이 힘이업는空氣球 그것에서무엇을求할수잇스랴

現世에잇는 虛空 은오즉虛空뿐이다 이것에서 結實을求하자면 이는꿈이아니면거짓이다 다시本論으로도라가서말하면 向上하려하는婦人들아 解放을하려고하는新女性들아 우리는準備를하여야한다 그準備는同時에 여러분自身을爲하야 그子女를爲하야 努力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一時的成功은그價値가一時에그치지만長久한準備우에선成功은그生命이長久할것이다 基礎가큰만큼解放을求하는同時에 無限의準備가잇서야 解放의機會를헛되게날니지아니하도록 準備를求하거든 新女性아 그것은讀書다 여러분自身을爲하야 讀書하고 사랑을憧憬하거든愛의完美를爲하야讀書하라 子女의아름다운將來를希望하거든 그子女를가르치기爲하야 讀書하야培養하고助成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讀書 하자 날노나아가는 今日의學海에서讀書가업서서 朝鮮女子가解放을바란다하면 알이업는곳에서 기름을바라는것과 다름이업다 어느程度의理解力이 發達하지아니하고 하는運動은 平等하자고하고 自由를부르나 그것은[illegible] 完成한後에야 自由가잇슬수잇다 그러나反對한다는것도아니다 [illegible]

學修 한新女子中에는 自己가誠意만가지면할수잇는사람들이 讀書를等閑히하고 무엇을쓰는체하며 애를쓰는체하는것은 自己便으로보면 社會를爲하야家庭을爲하야盡力하고貢獻하는것이잇는듯하되 그것이 그대지効果가아름다운것이아니다 勿論이다讀書만하고社會일은돌아보지아니하는利己的,個人主義的人物을求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自己의正當한應分한 責任을避하지못할修養에는等閑히하야 自己以外事를爲하야努力하여 한다는것은이것이참된努力이며貢獻한貢獻이된다는지나는다시말하고자아니한다 다만西洋女子와日本女子의讀書熱을 比較하고또는그네들의게우리朝鮮女子를比較할時에엇지衆心스럽지아니하고可惜하지아니하랴 우리社會에서多少工夫를한女子도 突然男便이社會에서 家庭으로도라오면 그男便에게話題를提供하고相談者가되는意見의所有者가얼마나잇는가 이것이素質의不足한것도아니다 그大部分의原因은讀書를아니함으로말하면新聞한장을分明하게誠心으로읽지아니하는 그비者엿지그男子와論議相對

할만한사람이되랴 家庭의和平과子女의將來를爲하야 目下自己의個性的讀書에努力하라고 그女子의讀書하는同時에男子가女子로하야곰 讀書하도록助하자는것이다 自信하고主張할勇氣가잇슬수잇스라 그리하면서平等한人格者가될수잇스며 同等의벗이될수

銀錢

白洲

어케와지도 새팔핫케 개여서 밝은가을의 아름다운 긔분이 뚝뚝흘으는것가치 생긋하든 하늘이 오늘은 갑작이 몹시도 흐려젓다 그리하야 그젹고도 둥근한섬속구즈구름으로 잔뜩이나 찝프린 하늘을 보는사람으로도 자연이 음울하고 유쾌치못하게하얏다 그우에 귀를 어이는것가치 매운바람이 휘휘부는 길가에는 사람들이 만하나 [illegible] 길가에는 오는겨울을 [illegible] 불안한마음으로 집에서 조치못한것을 하는사람들이 나왓다 바람에게 쫏겨다니는 나뭇닙들이 거리로 도망하고 도망하는듯이 잡을나고 양복주머니에다 손을넣고 몸을움추리고 가다가 거의괴롭한마음으로 개를숙여서 걸어가다보면 ×× 한참동안이나 다리가 어느틈에 길에서 한참식 나는며 몬지를 부-하니 이르키고다 [illegible] 나의가삼속에 숨어잇는 모든 불안한 마음은 심히불안하야 피人줄기는 굿세반항력을가지고 잇섯다 그러나 나의마음은 숨이멈추는듯 이엇다 나는곳 돈피人줄기를 [illegible]

도와갈만한시간도업슬만큼어더먹기에 밧밧든가 물어보고십고 어루만저주고도십헛다 『나리마님! 적선하십시오 지만볼을보지못하는이불상한 거지를......』 지내가는사람의 발자최소리가 들닐때마다 그는 귀를기우려듯고안젓다가 고개를쉬덕거리며 갓흔소리를 한사람앞에 멧번식 중얼거린다『......친지만불을 못보는......늙어빠진 그의발소리는구슬후게떨녀나와 과연그는눈을보지못하는 불상한 거지이엇다 사람하나가 또그앞으로지내간다 그는 또다시갓흔말을중얼거렷다『나리마님......』말도못나기전에 그사람은 벌서지내가버렷다 그는 말해야소용이업슬줄을알엇든지 한는말을 뚝끗친다 그리고그는 무슨락망이나한듯이 한참동안이나 그대로우두

가삼에숨어잇는 자긔의설음을말하야주는듯이 모도다 가늘고애련하야젓다 그는 돈을달나고멋번인지 또징하얏다 사람들은서로 머뭇머뭇하며 얼골들만 처다보고잇섯다 그는 불는종소리를넓은천지를향하야 부르기시작하얏다 이내몸은 갈곳이 업서요 날이가도 이내마음은 해가와도 이내마음은 설어라 애닯어라

청춘의한원에선 사랑도 안아보고요 우습도 우서보앗담니다 만은 새여진넷꿈은 다시만하더이다 그러나 옷지는마서요 우습찻고눈물찻다가 머엽부든그얼굴까지도 일어버리고 말앗담니다

길손의 애석진설음이야 금전만도 아니람니다 밥만도 아니람니다 이내몸은죽어도 눈물이 업서요

그는 추연한표정으로 다시종소리를놉혓다 돈은 일전이런쏘다지기시작하얏다 돈소리가날때마다그는고개를 흔들며 더욱흥기를내여서 자미잇게불럿다 그의거츠른 눈가장자리에는 가늘게충추는 미소가 떠올낫다 그것은다치자기의 신기한재조를 집버하는것도갓고 속업는 세상놈들의정업는 마음을 비웃는것도갓핫다 나도 돈을주고십흔생각이 낫엇다 그러나 나는 쑈곳을생각해보앗다 그에게 줄만한 넉넉한돈은업엇다 흑십전속에서 십전은 담배를사야되겟고 오십전은 일용할거리를 기어이 사야되겟다 엇더케할하면 십전쏘은 남을것도 갓흔나 그것을으로다 은전한닙이엿섯다 그리하야 그에게 돈을주지못하는것이나 나의 마음에는 좀섭섭하얏스나 돈이 업는나는 엇더케할수가업섯다 암만차저보아도 나의주머니에는 동전은업섯다 이때에나는 그에게 은전이라도 주고십흔

소리만듯고라고 그불상한 장님귀주리만하얏다 그러면 그소리는물론요란 스럽게 날것이니가 아모리눈은 못본다고 하지만돈을 이십전을 보도다 그에게던지는이돈소리를 들엇다 올타!나는 이러케 생각이 다시낫섯다 마츰 내을때엔 그불상한 종소리를을 드리가버렷다 ×× 커녀빼이다 하날은다시 맑갓케개여젓다 나는다시 예관을향하야 수업시그대로 드러가버렷다 나의마음은 또다시 돈을주고십흔생각이 낫섯다 그러나 벌서나의 나의발길은 벌서나는 자기의 것이다 나의마음은 또다시 돈을주고십흔생각이 낫섯다 그러나 그러타나는 돈십전갓흔것이 압흐로 [illegible] 나의입이말할때 나의얼골은 빨개젓다 그럿타나는 돈업는놈이다 너는그세상놈들보다도 더못쓸놈이다 너도돈만잇스면 자동차라고 다니고술먹고 기생집다니지안느냐? 지금도너는 엇더해야 그럭케할가하고생각하지안느냐? 그리고너는눈한평생을 그럭케 지내보고십흐냐? 『은십전이 앗갑어서?돈십전이 앗갑어서......너는 그세상놈생각하야보앗다 나의마음은 또다시먼저 집에서나올때와갓흔 불안한 가온대에 싸여버렷다 그리다가 모퉁이에다 가지고 물구나무를 서야한다 나의마음은 또다시먼저 집에서나올때와갓흔 불안한 가온대에 싸여버렷다 그리다가 모퉁이에다 가지고 물구나무를 서야하는 [illegible]

나무닙들이 다시울커갈재 그거지가안젓든 자리에는 무엇이 반짝하얏다 은전이다!나는아모생각도 엽서거이 업는그것을 우루르또키셧다 은전이 엇섯다 집 나는집이면서도 흐누가 또모두를 지나안는가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엿다 다만확-한하는 나의얼골우에는 서산을 넘어가는 어엽분태양이 웃음을 보내여서 고요히빗최고 잇슬뿐이엿섯다 나는이때에나의마음을보앗다 아니세상놈들의 마음을 알엇다 (쯧)

別後

巴人

가신담에야 꿈에나생각하시라 一揆가이던날밝여운그밤일을 鴨綠江건너기밧부게이즈실텐데

◇ 그래도조와요나는 당신발자최가故國境을넘어설때 단한번이야故國을돌녀다보실것 지요朝鮮땅에안긴 커를생각하겟지요

◇ 그러고눈물도흘니것겟지요 모래불에幸혀나풀작이나라고 서글흔이망울죽이는雨露나되라고

◇ 기다립나오기다립나오 나는요 당신이야닛거나말거나 네굽을안고가던 발발굽소리를 생각하면서 오시는날까지기대립나오

커니안젓다 그시간에 그는반드시 이사회조직의 불공평한것을 원망하얏슬것이다 그리고 앗헤 가서는자기의기구한가엽슨신세도한번은한탄하고말엇슬것이다

少年少女欄

춤잘추는왕녀(二)

류군원역

그와가튼명령이 한번국내에나린후로는 날마다날마다 수천수만의소년들이 궁뎐압흐로 몰려와서는

『이번내가춤을추게되면 왕녀는 반듯이 만족히 알러이지 그러케되면 나는 왕의사위가되려니 평생의소원을 달하게될터이지』

하고 기다리고 잇섯슴니다 그리하는동안 왕녀는 눈이부시게 아름다운 금은보옥으로 장식을하고 나와서 찬란한의복을입고는 차례차례로 소년들을 불너드려 가지고 류량한음악소리와 맛초아 춤을추기 시작합니다 옥좌에는 국왕이 엄연한 긔색으로 거러안저 춤추는구경을하고잇슴니다 그와가치하야 나가다가는 엇던자랑과 자신에 어린원든 어엽분왕녀의 그얼골이 점점찡그러지게되면 마참내 불쾌한목소리로

『고만나가거라』

이리하야 몰리쳐바리고 나서는

『비』

하고 황홀한빗으로 힘업시궁뎐을 나가는소년을 조롱하는것과 또가치 발그림히 건너다봄니다 그리하고 그다음 또다른소년을 불너드려 가지고 춤을추게됩니다 그러나결국은 전번과가튼결과를짓고맘니다

『너도 고만두고 물너가거라』

소년은 자긔의불공공을 한업시 서운히 녀이는 빗으로 하고는 허리를한번굽힌후 고개를느리트린채로 시름업시 발길을 도리켜 곳도 맘니다 이와가치하야 하로에도 몃백명식 수십일을두고시험하야 보앗스나 마참내하나도 눈에들만한 것이업섯슴으로 도리혀 왕녀의 심중은 더욱더욱 불쾌하야 갓슬뿐입니다

이것을보고 안저잇든 국왕은 오히려 한층더 깃버하엿슴니다 그것은 즉자긔의딸의재조가 일국내에도 놉히견줄만한 사람이 업것든까닭입니다 그래서 국왕은자랑스러운얼굴노 좌우를 도라보며

『참!상쾌한일이다 내딸의적수가업고나』

이러케도 국왕은 깃버하는데도 왕녀는 오히려한업시 불만에어리운 눈초리로 부왕을 처어다보며

『아버지! 우리나라에는아모도 커와겨수될만한 소년이업스니 이번에는 다른나라에구해보십시요 그래도 셜마그와가튼소년이 하나들이야 업겟슴닛가』

조금한말소리로 이와가치 청하얏슴니다

『오냐 염려마러라 구해보마』

국왕은 딸의뜻을맛추어 이가치대답하야노흔후 즉시사신을 각국으로보내여 여러왕들과 교셥하고 진과가튼명령을 내리엿슴니다 말을타고 홍은마차를타고 멀리고국을떠나 모혀드는 수만의소년들은 ─ 제각기 수사로 생각하기를

『내외에 또누가잇스랴 이번의 성공자는 나뿐이다』

라는 자만심이 가득한얼굴로국왕에게 뵈엿슴니다 국왕은빙긋이반기는얼굴로 일일히 그들을마지드렷슴니다 왕녀의생각에도

『이번에야말로 모다 각국에서모혀오는천수들뿐이니까 그중에는 썩잘추는소년도 만흘터이지』

이와가튼마음으로 시신과 시녀들을명하야 화려하게 무도장을 꾸미여논후 하나식 하나식 불러내여가지고 미묘한 음악소래와 맛초아 춤을추기시작하얏슴니다

『자-한번힘껏추어봅시다 당신이 잣은지나와 적수가된다고하면 우리아버지는 참차당신을사위로 삼으실것입니다』

이와가치 왕녀는 힘드려추기를권하야가며 쉴새업시 추어나감니다 그와동시에 여러소년들도 제각기 모든재조를 다하야

『만일내가 성공치못하고 그대로귀국한다하면 비단 나한사람의 수치일뿐만아니라 나라전데의큰수치가된다 그러코보면 우리나라왕께서는 분김에나를 붓잡어다가 갓우실는지도 모르겟다』

는생각으로 조금도 지지안켓다는마음으로 추어나갓슴니다 그러나 그와가튼상상과 희망은 모다 허사가되고마럿슴니다 왕녀와재조를 닷토기도전에 왕녀의아름다운 자태에놀나 고만졸도하야바리는소년도 잇섯고 왕녀의찬란한 옷자락과 부드러운 소결에 닷키만하야가지고 벌서 취흥을거가 죽어바리는 소년도 잇섯스며 절로얼마동안 춘다고하드래도 잣와지 대적지못하고 물너난 소년도잇섯슴니다 이와가치 별별사내답지못한 그들의 어리석은 태도를본국왕과 왕녀는 락담보다도 오히려분한마음을 익이지 못하야바르덥헤잇는 시종들을 명하야가지고 모다쫏차버려 바리고 마랏슴니다

順姬의노래

權淵龜

우리어머니 天堂가고 우리형이 시집가고 우리아버지 날버리고 멍기가음 또로가고 내혼자만 집에안고 내가호자 울을쪄에 북슬이『개』 복슬개야 어미개는 어데두고 너혼자만 여기와서 내가슴은 네가안고 네가슴은 내가안고 아츰해가 밤되도록 울고울고 또울어서 너눈물에 내빨젓고 내눈물에 또젓더니 짓고짓고 또젓더니 구비구비 떠려커서 권신만신 배여구나 외롭고도 가엽서라 너는커서 큰개되고 나는커서 어른되면 내간데를 내모르고 너간데를 너모르면 누를안고 운다말고 어는뻐라 다시만나 내설음에 너가울고 너설음에 내가울고 개야개야 북술개야 인년업시 만낫건만 어이그리 정답운고 (쯧)

火葬의길로

玉順喆

一, 火葬의길로 野生草인薔薇를 불살우겟다고요 스승은옥어지고요 잔듸는살니여 都閑히풀뜻는 羊의나라를도고셔 野生草인薔薇를 불살우겟다고요

二, 火葬의길로 시내幅느려노흔 개천을거처서 영을넘고 바람은짓든곳으로 기름을바르겟다고요 아......火葬의길로 아......火葬의길을

三, 火葬의길로 野生草인薔薇를 薔薇야! 靑山이울인다 天空이울이워 아......어머님! 숫치던한울이워요

初雪

(渡邊小山)

今年에도 벌서 첫눈은나려 이山커山에다 흰蔣衣를넘힐벼 나의오랜離別의 긴치름우에도 蔣衣의한옷이 방긋이덤히어라 어렷슬때의마음에쓰리고압핫든 그記憶의죽음이 커!불우한 蔣衣의한옷속에 김히 忘却의나라의품속에 아아 今年에도 벌서 첫눈은왓서라 나의오랜離別의긔인서름우에도 蔣衣의한옷이방긋이덤혀서라

鼻耳內服藥 蓄膿症에 効顯偉大
チクノール
鼻
價一圓五十錢 三圓 五圓
發賣元 東京神田 保町 三鱗製藥社
全國各地信用잇는藥店에有함 類似品續出チクノール名注意 代理店京城本町山岸天佑堂,新町平壤森田藥房,木村藥房

皮膚病藥
데-무水
皮膚病退治
데-무水는皮膚病의治療用의神藥
發賣元 東京藥院 東京市芝區田村町一八 電話一八七四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大阪市北區木幡町二五 電話北一三七八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効力이迅速함 麻疾藥 리베-루 特製リベール 九條藥局 竹村製劑所 大阪市 振替大阪六二六一 全國到處藥店에잇슴 奏効確實

毒掃丸 梅毒、淋毒、膿毒一切即効下劑 本舖 東京神田 山崎帝國堂

重役招聘 資産名望兼備한朝鮮人重役特待招聘希望 履歷書急送 大阪中央郵便局留置 中村

肛門內外 痔疾 患者에! 急告!
痔疾은내버려두면生命을奪하고 낫기쉬운고重症이되기쉽다
(一) 痔疾의毒은陰險하고日頑固하며 性質이惡함으로 初期에는急激한苦痛이 업지마는 閑慢히버려두면 症勢가惡하게되야 意外에여러가지 難痔로變化되야病苦의餘毒으로腦病神經衰弱「히스데리-」發熱、心臟病、腎臟病、腸結核가되며 甚한것은 肋膜肺病세지惹起하야 生命세지奪去하나니 모-든痔疾은 모수아조治療하지아니하면아니됩니다
(二) 痔疾의患部는毒이凝集하야 잇나니 手術을하야切取하던지 藥으로지지던지 或은注射를하야 痔을撲滅한다던지 또는特能藥으로毒을 全部吸收하지아니하면 아니되나니 姑息的으로는 治癒만안된뿐아니라 時期가느저짐으로 充分히信賴할療法을選擇하야迅速히實行하시오
痔疾專門의帝都大病院으로有名한東京肛門病院의院長谷泉先生은病院에서治療하는患者外에世上에無數한痔疾患者를위하야 手術을省略하고 費用을節約하게하야 如何한痔疾이라도一切部을그대로두고毒을取하며 셰실을用하야 自宅에서自己혼자治療할수잇는便法으로多年의研究를 發表하엿슴니다 此는實로院長으로의大特典인恩惠로 全治實驗界의感謝의聲은날로高하지는現況임니다 斯界의權威藥을信賴하고 迅速히治療하시요
東京肛門病院長谷泉先生創製 挿入藥「ヒット」 塗布藥「ヒット」 內服藥「ヒット」 ヒット式痔バンド
發賣元 本店 東京市銀座新富町八番地 丁子堂藥房 支店 大阪市西區北堀江
全國外海到處의有名藥店에有함

守妙
一刻이라도速히 活用하시요
感氣身熱
婦人의冷症으로 困難을當하시는분은
다른丸藥이나散藥과가치中毒의念慮가업는우리國民體質에應맛는 純和漢藥
守妙를服用할必要잇는때
를잡수시요
本舖 守田治兵衛

ClibPDF - www.fastio.com

今後의蘇浙形勢

戰勝의失敗者인齊燮元氏

◇上海에서 春 擬 生

蘇皖贛巡閱使兼江蘇督軍인齊燮元氏는長江의咽喉를扼하고江南의沃野를據하야中國을自己手下에號令할野心이. 勃勃한사람이다 그는일즉이前任長江巡閱使李純氏의扶翼한바이되야 江蘇軍務幇辦이되엿다가 五年前에 李純氏가 原因不明한中에變死한데對하야齊氏에게是非와批難이만흔中에 當時에李氏의後任으로는 王士珍氏의赴任을拒絶하고自己가江蘇督軍이되엿다가나종에巡閱使까지되엿다

그는 나히가 적을적부터聰明하기가 짝이업고 또한野心이만흔사람이다 恒常그의慾望은 政權과勢力을엇지하면잡을까하다가 及其全國의要地를차지한後에는 北京方面의 曹錕氏와및그部下의 天津派 保定派等을聯絡하고 南으로福建派東等地에서 失敗反直系가아닌分子를 收容하야 그의勢力을扶植하야 直系의非實上主將인 吳佩孚氏의勢力을對抗하랴하엿다 그래서 이두사람사이에는 恒常衝突과 暗爭이 적지아니하엿고 昨年에曹錕氏의大總統運動이잇슨後에 齊氏는必死의誠力을다하엿나니 이는大總統의 選擧가맛난後에는副總統의 選擧가잇슬터인즉그때에는 馮國璋氏의번을밧어서 副總統兼巡閱使의職啣을自己가 엇을수잇는것이다 그래서當時에 中國을武力으로統一하겟다고氣焰을吐하든 吳佩孚氏가恒常齊氏를排除하고 그의行動의挑撥欣天下하는것을阻礙케하라고하엿다

◇

이와갓치 全中國的으로野心을가진 齊氏로하야금 不平과阻害만주는것은 吳氏뿐이아니라 또하나가 잇섯스니이난에상이 모다아는바와가치上海라는 江蘇省內의區域이 그實權은他人의手에路하야自己는마음대로못하게되는것이다 그래서이번에는年來의宿嫌을 發露하고 江蘇의省域을 回收한다고宣言하야 蘇浙戰爭을 이르키엿다 蘇浙戰爭은 開戰한지四十日만에 彼此에四億萬以上의損害를내이고나종에 盧永祥, 何豐林氏等의亡命으로써 一段落을告하게되엿다

◇

그러면 이戰勝의利를가진齊燮元氏는 依例히 威風이堂々하게上海에들어와서 自己의宿願을序하고, 內外의士民을對할것이가삼에는 가득하엿겟지만은 그도또한그러케되지못하엿다 이는가튼 盧永祥氏等을討伐하든軍人中에도 同床異夢의格으로써 그컨에齊氏를시려하든 吳佩孚氏系의 一派와安福系의餘將으로써 表面齊氏의命을承하든一派가 先히上海에들어왓스니前者는浙江의後任督理인 孫傳芳氏와 聯絡이잇서서上海를먼커차지하랴고 盧永祥의 餘將들과一時에 內外相應하야 먼커龍華의 護軍使署와高昌廟의兵工廠을차지한 湖北軍의張允明氏이며後는그컨安福系의老物로써兵權의一部를依然히차지하고잇다가 上海를攻擊한다는 齊氏命令下에그대로兵卒을거나리고 왓다가 나종에盧何가亡命한뒤에 一便으로 孫傳芳氏의諒解를엇어 上海防守司令의任을 밧어가지고들어온海州鎭守使白寶山氏이다

◇

內容에 許多한 黑幕을가지고上海에 最先入城한 張允明白寶山兩氏는 모다吳佩孚氏의心腹이라고, 傳하는孫傳芳氏의命令을 듯게될으로齊燮元氏는上海에서 二十里밧게아니되는眞茹驛外지 와서잇스면서도自己의欲望인上海에오지도못하고孫傳芳氏는 盧何가亡命한지數日後에바로上海에들어와잇다 白孫三氏가 上海에들어온뒤에表面으로는 비록江蘇의長官의指揮대로한다고 말하나그러나그實地에는 不然하야 張允明氏는 一個接應軍總指揮이라는 職으로도 上海縣知事를自意로任命하야 江蘇長官이 任命한縣知事의 赴任을拒絶하고孫傳芳氏는自己의 心腹인楊邦彦氏로 兵工廠長官을 任命하야 潛勢力을 扶植하엿다

◇

孫傳芳氏는 上海에온지몃칠이아니되야 바로『上海의일은齊氏에게 一任한다』고公明하게宣言하고杭州로돌아갓스나 이것이 表面으로 자긔가齊氏로더부러싸호지아니한다고 말하고 그內容으로는 張允明氏로하야금積極的으로 上海의地盤을차지하라고 하엿다 張允明氏는 北京政局의 變化에 伴하야 또다시反直系等의 人士의諒解를求하고一便으로는 孫傳芳氏가 浙江의上海軍事上의 交通을밀고는 政治上軍事上의 活動을하지 못하게되는形勢인것을利用하야 『孫의先決後報』하라는 指命을밧어가지고 斷然하게 齊氏의行動을牽制하는 일부터 淞滬護軍使의 正式任命을行하다가 最近에北京政府로울밧엇다 그래든차에 安徽方面에 大變化가 생긴것을機會로삼어서 齊氏는崑崙에서 바로 南京으로돌아갓다 이것이何豐林氏當時 곳惡戰苦鬪를하기前에 狀態보담조금도 낫것이무엇이냐?

◇

上海方面으로만그러한것이아니라 江蘇省의要樞인徐州와南京사이에通行하는中間에 잇는安徽省一帶의 變化가 또한齊氏에게 一大打擊을與한것이다 安徽의軍事長官인 馬聯甲氏는아즉態度를 알수가업스나(그도變하기가十常八九) 그部下의高世讀이나 李傳業氏等은 馬聯甲에게不平과不信이 잇슬뿐아니라 馬聯甲氏가 그部下에게威信이行하지못하야 安徽의地盤을維持키不能한것이 또한事實이다 그러면 齊氏의號令이現下에도잘行하지아니하는江西와聯絡이 아조끈어질것이오오직徐州와上海를除한江蘇省內에서만 僅々히그의政令을行할지니 이것이戰前에比하야 오히려遜色이多한것이다

◇

北京政變의 結果와 吳佩孚氏의南下로因하야 그의處身은매우 困難하게되엿다 北京과天津사이에 새로모히여드는政客武將들은 討蘇論을主張함이多하고그部下에도反直의系統分子가多한故로 齊氏는 一時의手段으로써段祺瑞氏를擁護한다하야 緩兵의計를用하나 그러나 吳佩孚氏의 元氣가尙今도堂々하게南下하야 上海或은南京에 根據를두고 長江各省을號令하랴고하는것이 齊氏로하야금 마음대로處身을못하게하는것의 唯一한障碍이다 그러면上海의地盤으로써蘇浙戰爭으로써奉直戰爭―奉直戰爭으로써全國의大兵事와大政變을일으킨 主人公의하나인齊燮元氏는 戰勝은하엿스되 失敗者의人이라고 아니할수가업다 이것을따라서 一段落을告하엿스나 그러나 中國東南의風雲과暗潮는또다시엇지되랴는가

(十五日)

戀愛文藝撲滅論 (續)

東京 徐有俊

文學者가一生에重荷로지고잇는것, 考究할것, 洞察할것을放棄케雜하다 今日革新의機運에이서서는白雲黑雲山을덥는거와가치萬想飛來作家의心을 덥는故로評者의뜨거운烈情으로이를 도아주지안흐면 一花 又一花嗚呼々々蘭桂夭折의歎을免키難할거이다 萬想은벌서우리文壇을덥혓다 上은希臘의古典으로부터伊太利의詩 佛蘭西의文 獨逸의哲學, 小說, 빅도리아抒情詩에이르기 各々相을단장하고星晨이大空에반작이는거와가치燦然히今日理想天에位置를占하엿다 아!如斯히錯綜한思想을合하야一鼎中에너코 天才의불노溶解하엿스면一世의大觀 萬古의美事일거이다 그러나아즉우리社會에그런大天才업슴을恨하지안흘수업다 現今의朝鮮文壇은 얼핏말하면浪漫主義的傾向이가장濃厚한幅을占한모양이다 일즉이朝鮮은 支那文學에犧牲하엿다 支那文學은簡短이말하면風刺無邊하고謙遜淡雅를餘求하야形式에얼매이여自由로大空에伸張의翼을펴지못함으로그反動도업슴은아니다 그럿타고支那文學에는叙情的文學이업슴은아니라 支那文學의先驅者인杜工部의詩갓흔것은象徵的舒情의激越한感이업지안타 一例를들면

風急天高猿嘯哀 渚淸沙白鳥飛廻 無邊落木蕭々下 不盡長江滾々來 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 艱難苦恨繁霜鬢 潦倒新停濁酒杯

이얼마나感情을高調하엿슴이랴 다만姑息의文規와固留의弊端에不滿이잇슬뿐이다 如何間우에말한바와가치諸般思想의錯落함을따라從新棄舊는人心之傾向이라 理想과自由를엇는浪漫主義는 우리新進作家로하여금餘地업시同感을이르켯다 그리하야小說이고詩고할거업시浪漫主義의抒情氣分이 獨占的勢力으로朝鮮文壇을風靡하는거슨 숨길수업는事實이다 佛國에 『루―소』 獨逸에『시라―』『께테』等은浪漫主義를代表하는作家들이다 그들은일즉不合理의因襲의깨트리고 自由感情의表白을求하엿고 生活을簡素로하고生氣업는社會를改造할熱々은創作에詩에다 熱烈히表現하엿다 그리하야世道人心을指導한거이그들의一生의事業이엿다 詩와小說이文壇에重要한地位를占領하키된거슨論할餘地가업슬만큼民衆化하엿다 그는敎育의進步를따라民衆全體에缺치못할 生活의一部分이되엿다 現今朝鮮에雜誌創作集(極히稀少하지만)그거일사록 大槪는猥褻淫靡의挑發的文字를羅列하야 智識程度가는々치못한靑年男女學生으로興味中心主義를取한다 現今朝鮮文壇에는 사랑이란말은局限的使用語이엿다 耶蘇敎가드러오자 되밋처英語가普及됨에따라사랑이란말이 一般的用語가되엿다 子가父의게 母의게 弟가兄에게『아이로뷰―』式으로좃흔러낫코人情을表示함에『사랑』一語로代表式用語가되엿다 勿論耶蘇敎의愛의 味는 神에對한純眞한標語인同時에現實로人類愛를平等的博愛主義로代表한거이다神卽愛 愛卽神이란嚴正圓滿한意味의愛이다 그럼故로其愛는活生命의愛 高源한普偏妥當性을띈愛 幽妙靈機에觸하는愛이다 朝鮮文壇에作家들은이와갓한愛를資料로하는거이아니다 다만個人對個人의感情的愛―戀愛―永遠性에缺한享樂主義的官能追求의性的行爲 人格的責任觀念이업는自由戀愛로資料蒐集을爲事하니 이얼마나우리의切實한社會的背景을無視하고輕薄한境地에서天眞爛熳한靑年의純眞性을그들이弄姿하엿슴이라 元來小說 詩의責任이藝術의全的意味를包含하엿슴에따라眞理探求로目標하고高尙한人生觀을세우는데 重大한位置를點하엿다 그럼으로藝術은超越脫俗的媒介物이아니며 貴族的隱居者類의遊戲的羅貫物이아니다 文學으로하여금苦熱을忘却하는一塊의氷片禪味를悟覺하는『氷의音』에比한것과無我가窮極의目的을形成하는것이라한것도半面의眞理는잇다하자 그러나다만絶離遁俗忘却超俗의手段이라하면『術은創造』이라는正眞한定理를너무나輕蔑한거이아닌가 『藝術은藝術을爲한藝術이란』解說은 밤서永不歸의消息을우리의게傳한지오래다 藝術三昧의妙境은宗敎의存在와 一致하는것이다 藝術의意味엇지深大幽遠하지아니한가 深刻味가업는鄙弱한戀愛至上主義를 資料로하고색리업는技倆으로 힘잇기자라오는 中學靑年男女로하여금얼마나 그들의淸新한頭腦를痲痺케하엿스랴 우리社會에男女學生風氣問題가 社會問題를惹起할만한程度에이른것이 決코偶然이아니다 그背後에色魔作者의宣傳이잇슴을 누가否認하랴? 去國三巴遠, 登樓萬里春의氣槪的悲壯氣質을 버서나서참(眞)으로도라가란말이다 詩로말하드라도 戀愛만을主題로삼는거슨아니다 抒情詩의分野도宇宙百般事를包含하는것이다 『쉘레』는自然, 人事, 神의三領域에亘한다하엿다

더욱耶蘇敎의背景을엇엇슴에純々如也하야不朽永遠의生命에색리가깁다할수잇다 우에도말한바와가치 『루―소』는虛僞의社會와制度一主義의敎育을罵倒하고 赤裸々한自然人을求하고自由와平等을爲하야 全力을다하엿다 그는時勢를率先하야民衆的先驅者의責任을 果然履行하엿다 『에밀』『對話』等著書는모다『自然으로돌아가라』를간절히表現한것이다그는第一專制壓迫에反對하엿다 旣成群衆心理에反對하엿다佛國의靑年으로하여곰剛毅自强의本質的人生觀을세운거슨勿論이오그思想은全世界이여『나파론』으로하여금『루―소』가나지안햇스면佛國革命은업섯스리라고斷言케하얏다 朝鮮에文學者로自任하는諸兄이여―그쪽닥이戀愛思想을써나서우리社會的全面의事情을觀察하야無産階級『로메다라이아』文의增長頹期임을 아라야한다 肉體의精神的으로 飢渴이切迫하야悲歎慷慨속에서形影相吊한 朝鮮民族을罪利의筆로救濟할朝鮮에『루―소』가나기를切望하야마지안는다 愛를資料로하고創作或은詩를쓰거든 萬衆을網羅하고萬衆을包攝하는 곳宇宙自體라고할만한 『예래』를目標하라 朝鮮文壇은 우에말한바와가치大部分이 個人對個人의感情問題를主題로한 毫芒淫巧한讀物布置之現象은 一般社會特히自主的人格의修養이不足하고 自律的道德觀念이缺乏함으로 自主的思想으로 그들能하批判치못하는感受性에富한靑年男女에 直接으로주는惡影響은참으로容認하지못할일이다 그作品의大部分은 眞正한意味로何等의藝術味가업슴은勿論이요도로혀風俗을壞亂시키고 健全한靑年의精神을 破壞하는魔物이라안할수업다 朝鮮의文藝作品뿐안니라 言論雜誌도그런傾向이잇다 陰凄淫森한挑發的文字로個人의人格批評 私行秘事―一擧一動을報하야 自證의社會敎上惡影響은勿論 도라보지아니한다 的地位조차 마암잇는者로하여금唾棄할만한文字로、채와서民衆의野卑한興味에迎合케하는거슨恥辱로되이지안할만치 그들의 見識은墮落하고 그들의趣味는俗惡하여졋다 그들은自네가 一般民衆의輿論을指導하고 世道人心을左右할重大한敎育者인줄을 覺悟치못하며 그들은朝鮮에固有文壇이자랑할만한거시업슴을自覺하고 勇往猛進하야朝鮮文壇創始의重大責任者인줄을 몰은 에도意識치못한다

露西亞에『톨스토이』『도스토쑈스키』等이世界文學史上에最大한貢獻點은諸般問題를材料로하고 議論한點에잇다 政治上으로그와가치專制的壓迫이잇섯고言論上으로參照的不自由가잇엇슴을不拘하고 自己의正義人道의思想을惟一의지동을삼고 날낸뭇끗으로부르지침으로 一種의安慰와 滿足을어덧다 그럼으로露西亞文學은 直率하고 眞劍하고 眞重한素質味가잇고 그言하면人生그自體가文學이란것이露西亞文學者이엿다 英國에『카라일』『우돈』等이其時그祖國을背景삼고 그얼마나社會問題에突入하야 詩로 創作으로 社會改良을絶叫하엿슴은 이제와서喋々함을기다리지안어도알것이다 不自由、不平等、不合理의制度下에 氣息이奄々한우리社會에서 何暇에閑隱無事를달콤한戀愛만으로 優遊度日하랴 아한직은우리는自發을促進할時代이다 그럼으로우리思想의 悲調는民本主義의旗幟下에各個人의人生觀의確立에잇다고나는絶叫하야마지안는다 偉大한國民은偉大의思想을藏한다함은先覺의말삼이다 羅馬의文物이 暗中에 沈倫한지一千餘年 그래도地底의 各派와가치 一貫한 文化의 大法은 커活潑勇健한또는種族을 冥々裡에 煮化하아비로소 潰端을보게되매 狂瀾을動하고 怒濤가陸을漂할과가치 新思想은餘地업시舊思想을씨첫다 人心은 모다一大革新의域에 蕩하얏다 그리하야西歐民族의永夜의김흔꿈을 撥破하얏다 이에 爀々한 日月은 그들의眼前에 드러낫다 그쎄의風光은 그얼마나그들의게아름다웟스며 얼마나그들은이美麗한宇宙에驚歎하얏슬까 아! 그들은果然여기에醉하얏슬거이다 그들은에新思想은電光과가흔剛俠의詩人『마로―』萬想을包容하야도남을만한大海의澎湃함과갓한『쎅스피아』等의奔騰豪快의筆로新世界에迅雷의勢로나타낫다 『大盜바싸라』보담剛惡한耶蘇라고쏘직고『모쉬』를魔術者라고罵例하든『마로―』의大膽함을넘만하지아니한가

아! 그들은이와가치 몸을造化의품에던지고 氣魄은衝天의感慨가잇다 이와가치하야英國民心의基礎가定하엿고 이와가치하야剛健한『앙그로삭손』民族의素養은成立하엿다 아!萬感交至 마음의動搖를禁할수업다 朝鮮文學家로自任하는諸兄이여!우리의處地와境遇를明察하사無制麗纖嚴正의位置에서 腐敗撫然에 허매는 朝鮮文壇을革新하며 竿頭一步나아가서氣宇闊中의筆로創設者―朝鮮에『루―소』와『셰스피아』『톨스토이』等大文學家의輩出하기를期待하야마지안는마음으로。(完)

바위틈의소나무

權 淵 龜

나는헌々이싸인바위틈을본다
그바위틈에외로이섯는
소나무를더욱이뜻잇게본다
늙은이머리가치성근솔닙이
그래도푸른빗그대로
寒空을치어다보고
아무말업시섯는것이
내에게는그커렴뜻잇게보인다
그러타나는소나무에게서
生의欲望 生의擴充을
그누구에게서보담도
切實이배호는까닭이다

내님의얼골도

月 林

감실감실 아즈랑이
춤추는봄아츰에
곱게피인쏫들을
슬어질가햇서라
산들산들찬바람이
부러오는가을밤에
환하게동거든달을
이울어질가햇서라
피는쏫가치아름답고
보름달가치도환―한
내님의고흔신얼골이
늙으실가햇섯더니
커무는봄날에
슬어지는쏫가치
느즌그몸에
이울어지는달가치
암니마에 하나둘식
주름살이잡히더이다

그대에게

郭 芦 葉

님이어불붓든가슴은이케는식
어재만남어진 아궁과도가치
차고쏠쏠한바람만들며임니다
님이어 山에도들에도
이케는綠陰이
날마다날마다 프르러가서
다스람은병은 그늘에싸힘니다
님이어 지커귀든새들도
이케는가만히
푸른가지에 머리를기우리고
새쌈한눈만썻다감엇다합니다
님이어 골작이와골작이의
거듭친바위밋헤
하이한百合花가한송이피여
상쑷한香내를. 피어올님니다
님이어 헤여진먼길을
나는이곳서쉬어며
부인가슴에 香을피우고
한울을우러러合掌을들림니다

삼가저흘뿐

근 원

지금은밤―
어지러운바다―
旋風에쏫기인 사나운 波濤는
―압흐로 뒤흐로
버―ㄹ가치도모라와―
굿쇄인힘 밤배질하는 사공아
그럿타고 그럿타고겁내지마라
바다는물결흔곳
물결은바람조차이―난것
바람길에거침이업고
물결에反抗을줌이업스면
무엇너에게재앙됨이잇스랴
원억할이잇스랴?
그곳네가커어온길은
압흐로萬里 뒤흐로萬里
하날에는그믐달 써에는여울
소래
故鄕의성은은고사 해오래비
(海鷗)조차업서여
그럿타고그럿타고한탄치말나
孤獨이란설음을늣가지말나
가는길의모도가바다일뿐이라
怒濤에呪咀됨이너일뿐이라
굿쇄인힘 밤배질하는사공아
滅亡의길 放心이란 주추를흔
어바리고
쉬임업는努力을忍從이란방때
와함쎄準備하라
―來日의曙光을
모레의大陸을맛기위하야―

花王石鹼

廉價의良品은國寶

●世界의大勢에鑑하야 內外多事의國情을도라보고 恒常切實한必要를感하는것은 國力의充實이다 이에到達할唯一한길은 國民的大自覺으로써 自制自疆 크게富力의蓄積과體力의向上과를期함에잇다

●弊舖는創業初부터國家的見地에立하야 國産自給의極히緊切함을自覺하고 國益에資하려는大精神下에堅忍不拔三十有餘年 一貫한『廉價良品主義』로써恒常最大의努力을다하는中이다

●이것으로써價格은經濟生活의本旨에適當하고 品質効果에잇서서는 保健衛生의目的에合하야 『眞個至純至廉의第一品』으로크게一般의期待에奉副하야 信用이날노놉하지고需要는해를싸라激增을보게됨은弊舖의가장榮光으로欣快하는바이다

●勤儉力行 크게膽의實을擧하면 我國力의充實이決코오래지아늘것이며 國運의興隆을期待할것이다 富力으로體力으로擧國的發奮努力을要하는때 國民經濟에保健衛生에至重한關係를有하고또그使命을다하는本品에對하야 愛國的愛顧를바라나이다

花王石鹼本舖 合資會社 長瀨商會

中央版

仁川府內 各團體

최근의상황

인천부내에잇는 조선사람의 단톄는적지안은바 그중에도 동업자간에 조직된조합가튼 것은치지말고 사상단톄라 할청년회나소년회로는 보합 여덜단톄 회원수가 오백이십여명인데 그일홈과회관은

엡윗靑年會	七〇人
漢勇靑年會	三七
以友俱樂部	六〇
「케롤포」靑年會	二〇
仁協會	四五
少年斥候軍	三五
「몬보긔」少年會	一〇〇
仁川少年會	六〇

이오다시각공장이나회사에종업하는사람으로단결된 로동단톄(勞働團體)로는 그수가여섯곳에그회일홈과 회원수는 아래와갓다고(仁川)

勞働總同盟會	一二五〇人
精米職工組合	三〇〇
選米女工組合	二〇〇
印刷職工組合	一九〇
新友親睦會	一二〇
米信親睦會	三五
	四〇

仁港穀物輸出 年年增加

昨年中에百十餘萬石

조선서나는 곡식을 해마다일본이나중국 방면으로 수출되는것이해마다 늘어가는바 인천항을말매암아나가는 곡식으로 말하면현미백미대두(玄米白米大豆)의중요한것만도해마다증가되는현상인데 금년에도이달 이십일외지루게(累計)가벌서이백여만석이라하며 이것을최근 오개년에비교하면 그수자가 아래와갓다고(仁川)

五年前	五三五,四〇六石
四年前	五一三,五六〇
三年前	一,四八三,三九二
再昨年	一,三七六,三六八
昨年	一,一二五,二八一

요란스러운 飮食店의風氣

경찰서에서취톄할터

개성시내에는 작금양년 에이르러요리뎜(料理店)과음식뎜기타주뎜등의 수효가심히 느러감을따라 그리면에는 부랑자와 약한청년의 유혹되는 일이만히가는동시에 요리뎜과 기생집은물론이어니와 일반음식집 에서도낫과밤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장고를두다리며 질탕히 노는자들이만히잇서서 풍긔를 문란케함으로 그이웃에 잇는여염집에서나 영업하는상뎜에도 방해가적지안코 엿업에도 방해가되어 일반은 걱정으로지내던다하야 일반은걱정 하던터이던 개성경찰서에서는 그종류를 알만한 엄중히 취톄할터이라고(개성)

電社創立前은

매단瓦斯宣傳不可

안성읍내일본인前伊三郎은수삼년전부터「매단와사」란것을自己가研究하야點燈,厨爐에使用하도록完成하엿다는宣傳文과 郡守李起錫庶務課長杉野應三郎兩氏의『매단瓦斯』에對한賛辭等을印刷하야當地一般에配付하려다가警察署의注意에依하야中止하엿다는데이에對하야警察署岡崎敏明氏는말하되그것을宣傳함이不穩하다고禁止함이아니라方今이地方에서는電氣會社를創立하려고오래前부터運動中이요現在第一回株金拂込要求外지하고잇는터인데매단瓦斯를使用하면點燈,燃料等問題를解決한다는듯으로宣傳하면電氣會社成立上障碍가不無할듯하기로會社成立되기外지延期하야配付하라하엿고且調査한바에依하건데 매단瓦斯는獎勵와設備에不少한費用을要함으로今日朝鮮人의實生活에는適當치안타고말하며또某氏의談에依하건데 매단瓦斯는日本大分縣人某가專賣特許를맛흔것으로朝鮮의氣候에適當한與否를仁川에서方今試驗中이라고(安城)

安城邑에도 米豆檢查所

米穀商은便利하다고

안성읍내에는從來米豆檢查所가업고二百叺以上의檢查를要할때에限하야平澤으로서出張하게됨으로실리檢查員이臨時出張하게됨으로매우不便을感하든바今般安城郡廳內에平澤米豆檢查所出張所를設置하야米豆의多少를不拘하고檢查하게되얏슴으로米穀商에게便利하게되엿다고(安城)

鐵道用地買收에

安城邑地主는不應

京南鐵道天安安城線은十二月十日부터起工하기로決定되엿다는데鐵道用地買收에對하야는同會社用地主任並河時忱、安城線速成同盟會代表徐相準兩氏가奔走中인데敎場、瑞雲兩面管內에는大部分이買收되엿스나邑內面에는아즉承諾을맛지안엇다하며同社에서는左記標準價로買收하는것인데邑內地主들은時價보다斷然히低廉하다하야買賣에應하지안는다고(安城)(一坪單位)

區別	上等地	中等地	下等地
畓	四十五錢	卅五錢	廿五錢
田	廿五錢	十五錢	同
垈	三十錢	二十錢	同
林野	十錢	同	同

(但邑內面玉川坪畓은特等地로坪六十錢式으로한다)

薪炭에市場稅

의레히밧는다

장날아니라도

경긔도 안성(安城)읍내 시장에서는 오래동안 시장세 부정증수(不正徵收) 사건으로 분규한든바 지난십일월일에 군청훈령으로 시장세증수수속을 청하고부정한일이 업도록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수속이 개정된오늘날에도 신탄(薪炭) 장사에대하야는 장날이 아닌때에도시장세를밧는데 이에대하야 군당이등재무과당(伊藤財務課長)은말하되 시장세는 장날에만밧는규뎡이나 신탄에대하야는 래전부터 나려오든습관으로 장날이 아닌때에도 밧어오든것인데이규뎡대로하면 이것을 단연코밧지안을것이로되 이미 구든습관을일조일석에 고치기 어려워서당분간 종전과가치 밧게한것이라하나 일반여론은 습관을위하야규뎡에 업는가혹한 세금을밧는다는그뜻은 아모리해도 알수업다고(安城)

朝鮮學生會의 音樂講演會

이십오일청년회에서

조선학생회(朝鮮學生會)에서는 그회의주최로 명이십오일 오후일곱시에서내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음악 강연회를 개최한다는데음악으로는 청아가곡 일홍윤심덕(尹心德)양의독창과 경성대학예과(京城大學豫科)교수로잇는 「셰라이스」씨 동부인의출연이잇고 학생측으로는 각전문학교음악부의 출연과 녀학교의찬조음악이 잇다하며 이번에특히조선 학생게에 새로운긔운을촉진키위하야 강연도 잇다는데연사와 연제는 다음과갓다고

▲朝鮮學生의特典　申興雨

▲朝鮮人의品格　崔麟

農林產物品評

始興郡

南面振興會主催로農林產物品評會를開催한바十四日부터三日間大盛況을이루엇스며此에對한經費及出品點數와授賞點數는左記와갓다고(水原)

經費　八百十五圓

出品點數　一,五二三

授賞者　一等三人、二等五九人、三等一〇九人、四等二〇八人、五等四〇七人

各郡訓導講習

楊州郡

教育研究會에서는管內各學校長及訓導四十餘名을招集하야지난二十二日午前十時에楊州公立普通學校內에서京畿道學務課視學委員指導下에修身體操의實地教授와體操及運動競技等의講習會를開催하엿다고(楊州)

小作品評延期

既報한

安城郡一竹面登山里尹興林氏小作人品評會는本月二十四、五兩日로延期하엿다고(安城)

畜產品評好績

既報한

楊州郡畜產品評會는廣積面孝村里에서開催되얏는데數千觀衆으로大盛況을일우엇스며出品點數도百餘點에達하엿스며成績도良好하엿다고(楊州)

產米改良組合

安城郡

에서는產米改良의目的으로今般大德、孔道、陽城、元谷四面에產米調製改良組合을組織케하고生產租는반다시조米로調製하야組

苦學生을救濟하자

◇朝鮮사람은누구든지부르짓는것이教育、產業이다그부르지지는眞意의如何는勿論하고 그本意는 아마 우리의生道가教育、產業에잇다함을意味함일줄안다 누구를가릴것업시個人의教育이나個人의產業을論치아니하고 廣汎하게朝鮮의急先務를부르지짐한다

◇그럼으로누가듯던지教育、產業을論하는者는 나라를爲하는者요 社會를愛하는者이다 아케同胞를愛하는者이다

◇試問하노니教育、產業을論하는여러분의그眞意가 참으로 朝鮮을爲하고 참으로社會를爲하며 참으로同胞를愛함에잇는가? 나는이케조금도躊躇치아니하고 教育產業을論하는者의 게뭇고십다 그것은國家로는第二世國民이요 社會로는未來社會의主人公인靑年이 道路에彷徨하고 飢寒에痛哭함을凡然視하는事實은 무엇을證明하는가 萬一우리社會에조곰이라도 참으로國家를爲하며 社會를爲하야教育、產業을云々하다면社會的으로 苦學生의生活을저럿틋이放置하지아닐것이다

◇朝鮮社會에萬一苦學生이아닌者만工夫하게된다면 보자 그數가얼마나될가? 朝鮮은苦學生國이라하여도過言이아니다 그러로두고教育은언케普及、產業은언케進興할가? 우리도잘살기를바라고 死滅의慘禍에서一의甦生路를求하려하면 어서々々苦學生을 救濟하여야할것이다

◇未來는靑年의것이다日前에나는 苦學生의憐憫한生活을듯고 엇스며그에對한 市內平洞崔氏의同情할도듯엇다 오직崔氏와가치赤貧者로도 苦學生을同情하거던 엇지잇는者로와이며로보려고하는가 참으로朝鮮의將來를爲하야 苦學生을救濟하자

(吳佩生)

英語發音教授

朝鮮中央基督教靑年會主催로今二十四日午後四時半에同會館內에서크롤씨를請하야英語發音法을教授할터인데中等學校三學年以上程度에限하야聽講케하며聽講料는印刷物費用으로五錢을밧는다고

『스켓』俱樂部

近來仁川靑年界에는多節이면氷上運動이盛行하든바今年겨울에는더욱此를勵行할目的으로同好者間에相議하야再昨二十二日午後七時山平町每日申報仁川支局에모혀『스켓』俱樂部를組織하기로決定한後幹事로李箕平、韓萬億、中泰奎諸氏를選擧하고散會하엿다고(仁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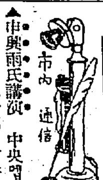
荏子面民大會

曾校位置問題로

全南務安郡荏子面에서는有志의發起로去十六日에同面鎭里에서面民大會를開催하고會衆을從하야普校基地變定의件을協議하든中서로意見이衝突되야一時는會場이大混雜을이루엇스나彼此의諒解로結局郡道兩局에左記陳情書를提出하기로決議한後時間의關係로面事務所位置變定의件을猶豫하고午後六時에閉會하엿다는데學校基地에關한問題의內容을들으면從來同面에相當한教育

◇版外消息◇

▲申興雨氏講演　中央엡웟靑年會主催로今二十四日下午七時半中央禮拜堂에서開催하는데演題는「歐米靑年과朝鮮靑年」이오入場券은東亞婦人商會에서無料로提供한다고



育英事業 十年勤績

光成校安周源先生의紀念式

十餘星霜을하로갓치前途有爲의少年들을敎養하기에苦心勞力하여온平壤光成學校先生安周源氏의壯烈한在校十週年勤續紀念式을二十二日午後十時平壤南山峴禮拜堂에서盛大히擧行하엿는데同校學生一同八百餘名을비롯하야金得洙氏의司會로式을始作하야 다시 學生一同의同先生에對한敬禮와 來賓의祝辭와本校長忠南瑞山郡에서는當地靑年會發起로勞働夜學會를組織코저來二月前부터決議가잇서場所는瑞山面所會議室을빌려고十二個月前부터任員諸氏가面長과交涉하든中面長은면제받에게밀고郡守에게빌고..

問題의 夫役代金

官民協議로解決

定州淸亭間一等道路와淸亭雲田間等外道路工事費를定州郡民의負擔으로修築하든同時에夥多한夫役을徵發하는것이不當하다는理由로諸夫役代金不納同盟發起會를組織하고面民의熱誠으로하야先郡當局에質問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其後二十日本道土木課長이出張하야邑內有志와聖得奧恒龍方應謨朴庸根四氏를郡廳으로請하야相議한後左記條件으로協議되야解決을어덧다고

一、定州淸亭間一等道路工事費二萬三千八百八十五圓中三千三百八十圓은道에서念擔할일

一、定州淸亭間道路中에잇는蓮川江橋梁은道에서念擔架設할일

一、定州로南面及海山間等外道路도亦明年으로起工完成하되道에서極力援助할일

一、定州泰川間道路도以上과가치할일

一、其他는朝鮮線路도收修할일

勞働夜學場所

빌려주지안흔다고

이리핑게저리핑계

昌原青年團

復活運動開始

慶南昌原靑年團이多額의負債로因하야解放의慘劇이不遠間에잇게되엿다함은已報하엿거니와該團員一般은各自의義務를엇다는下團員一般은激烈한活動을始作하야一週日間復活運動을하엿는바同團內文化部에서는文化事業으로街道上에漆板을設置하고金言名句를行人의게揭示하며 一便으로는素人劇會를組織하야去十七、十八兩日間當地에서興行하엿는데多少의同情金도잇섯스며一般團員은誠力을다하야死活의斷判이잇는此運動을繼續하는中이라고(昌原)

◇天氣豫報 晴一時曇

	昨日正午	昨日最低	昨日正午
華氏	五一	三二	
濕度		一六	四〇

勇生

長白山人作　安碩柱畫

(十六)

상편

答應疑質

【問】甲乙丙丁所有畓의中央에介在한河川下部小淵을新作畓으로因하야上記甲乙丙丁四人의畓에浸水되야農作物의大損害를被케하엿슴으로前記理由로損害를賠求則成의所答이損害는不應이고川狀은前形대로復舊하겟다하오니此에對한損害를엇더케請求할가요

【答】損害賠償請求의訴를提起하시오(辯護士金川茂氏談)

一『實費』는日常生活에關係있는事에限함

一『應答』은本欄으로하야發表함

一『質疑』는匿名을許치아니함

古今詩叢 (投稿歡迎)

反求子

多病孤松詩見和

衆芳沒盡霧初晴。惟見庭松勁節清。不求時雨蘇生澤。解作秋風亂落聲。寒暑消長無介意。紫紅休誠亞陰情。本然節粧何所恨。一生千歲少怯榮。

路上逢賊

訴取犯判明

肺病 ろくまく疾 麻毒 梅人病 婦人病

本會의全治一千數百의患者로서 …

京城公平洞(鍾路十字街北便)

有田 또락千商會

理想村

鄭馬夫作

自由、平等、愛、自然의理想的世界가果然어디잇는가? 本書는指南이니全世界에理想的建設은어디로갈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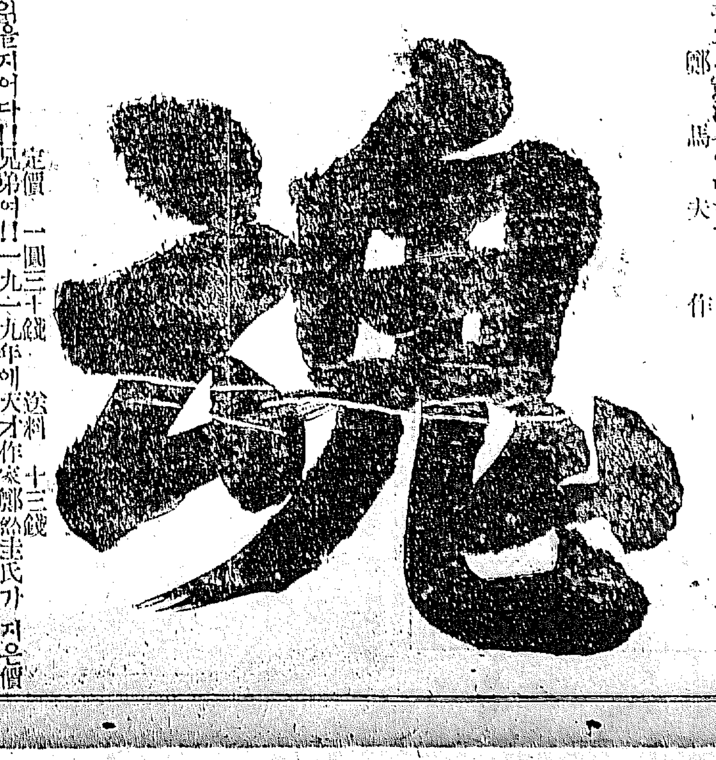
定價 五十錢 送料 九錢 (再版)

過激派運動과 反過激派運動

鄭馬夫作

露西亞共產黨으로부터革命을達成하기까지에彼等은果然엇더한宣傳과方法을講究하엿스며革命後에「소비엣트」政府의社會組織과그의憲法은엇더한가!

定價 五十錢 送料 九錢 (再版)



금모래

金億作

定價 一圓三十錢 送料 十三錢

兄弟여!! 一九一九年에天才作家鄭然圭氏가지은價值잇는「魂」! 이小說은우리의過去와現在와將來를描寫한것이라. 出生하자마자鐵窓生活을一年間이나하다가今日에야九死一生으로世上에나왓스니사랑하아!! 누구든지읽으라!! 復活한길을차즈리라

금모래

定價 三十五錢 送料 二錢

詩集이나오는때마다녹하가는氏의著名、이번『금모래』는民謠詩는아리아리한곡은曲調이니만큼여러분의心琴을건드려내는것입니다이詩集한卷이야말노朝鮮詩壇의最初唯一의걸作이을이니라

社會劇 人形의家

女子解放의聖書!!

定價 八十錢 送料 十一錢

本書는입센先生이心血을注하야成한有名한問題의劇이니其內容은女子를男子의玩弄物에서解放하야充實한人格的同等을주려하는同時에모든女子는、쌀、아들、안해、어머니하는人形이되기前에저完全한사람이되여라함이다 全篇에넘처노는妖艷한濃厚한氣分은他의類를絶하니라

世界名婦傳

女子의典型

定價 一圓 送料 十二錢 (再版)

本書는世界各國에政治、經濟、宗教、教育、科學等各方面에卓越한功績잇는모든女傑女聖의一生을小說的으로가장興味잇게記錄한三百餘頁에大篇이니그써奇異하고滋味잇슴은小說이에미지못하며不知中德性과智識을기름은科學을凌駕하지니、아!읽으소서우리父母、兄弟、姊妹시여!!

京城府堅志洞二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七六六〇 電(長)光一四七九

祛痰止咳散

기침약

산 해 지 담 거

京城太平通二丁目 慈善堂藥房 金錫淵

東亞洋流

術奇太內秘術

銀定價表

翰林風月 大折一頭 四十錢

芙蓉堂 大折 一頭

首陽梅月 中折

百世滿風 大折

碧城香烟 大折

六角塔 中折

海州製紙販賣所

所長 金泳澤

主務 崔炯奎

LA DONG-A ILBO.

SEOULO, KOREUJO, LUNDO, NOVEMBRO. 24. 1924.

KIO ESTAS INTERNACIA HELPA LINGVO ESPERANTO?

DE INOCENTO SFRISHEV.

Tiun konvinkon nun posedas nur ne multenombraj homgrupoj, sed tiu konvinko plifortiĝas.

La ideo de la Internacia Lingvo kreskas kaj floras. Kaj nun ni povas jam proponi al ĉiuj dubantoj, al ĉiuj nekredantoj: alvenu kaj esploru. Tiuj, konas-la movadon de la Internacia lingvo, ĝian esencon, —tiuj ĉiuj jam estas ĝiaj amikoj. Inter la personoj, konantaj la problemon de la Internacia Lingvo, ne ekzistas kaj ne povas ekzisti malamikoj.

DEKLARO DE LA ESPERANTISTA FEDERACIO KOREA.

Jam delonge al la homarano venis la tempo unuiĝi en la vera amo kaj kompreno de kunfratiĝo por forpeli malbenitan antaŭjuĝon kaj baron de la gento. Kaj la homarano humaneca jam malĝoje vidis, kiel absurda kaj nenatura ĝi estas, ke nur per sia propra lingvo unu altrudis perforte la alian. Propra lingvo mem deviĝas esti por ĉiu gento kaj por la tuta homaro nur troviĝas Esperanto komuna por ĉiuj. Lerni Esperanton kaj ĝin praktiki signifas pli bonigi interkomunikiĝon de ĉiu homo kaj progresigon de la tuta monda kulturo.

Pro tio kore ĉe koro kaj brake ĉe brako ni, esperantistoj en kara koreujo, kunvenis partpreni al la granda sankta batalo, forigínte ĉiujn Privatajojn. Vere, antaŭ ni nur kuŝas la vojo sola, komuna kaj nobla por esperantujanigi la tutan homaron, kaj por ĝi ni ŝparos nenion plue.

"Tuta homaro, en esperantujo unniĝu!" Jen, kiom da fojoj sonoradis la sonorilo ĉiujn avertanta! Konstanta, fervora laboremo kaj unuiĝo kontenta, konsentplena de ĉiu samideano nur bezoniĝas realigi nian celon kundeziritan.

Ni do ĵuras; neniam kaj neniel ni forlasos la manojn ĉe ni interpremintajn kaj la korojn ĉe ni unuiĝintajn. Al ni kondukas la Espero bela kaj brila, kiu similas al stelo Siria en la vintra nokto longa kaj malluma.

Vidu, amikoj, ni kun koro plena je varma amo homaranisma, ekpaŝas la vojon. Amikoj de la tuta mondo, bonvolu donacu al ni koran preĝon kaj fortan kompaton por plibele plenumigi nian celon deziratan!

欄트란페쓰에

(下) 國際化的生活과에쓰語

朝鮮에쓰語聯盟宣言書

月曜欄

「다다」? 「다다」!

無爲山峰 고사리

藝術의帝王時代는 벌서 지나간옛이다 한主義와한派流가 至上權을가지고 君臨할때가 아니다 만일이러케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림업는錯誤일것이다 個人各自는 그自身의宇宙와人生을가젓다 이리하야 所謂「一人一黨」이라할만한群雄時代가 되야思想과表現이 極端의個的分離가 되것은 우리가 보는바이다

藝術이란 單純한思想表現이 아니고 思想을 살니는個人의 心的表現이되야 各國人이 서로다른모양으로 各自의表現이 다르고 態度가 달나저서 文藝史上에는「이즘」투성이다 이것만으로도 엇더케「一人一黨」主義가 만흔것을 짐작할수가 잇다

歐洲戰亂前하야 이만흔「이즘」中에서 立體派가 驚異와 好奇를 준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이다 戰場에서 取傷햇서 그때문에죽은稀世의天才詩人 『기욤아포리넬』이가 詩歌에 나타내인運動은 繪畫에對한 『피카소』『글레스』의偉業과 가치 『驚異』그自身이다『마리네치』가 狂暴한野蠻的感情으로未來派의 詩歌를創設한때와가치 立體派도旣成『詩歌』에對하야엄청나는 反抗과改造를위한 奇怪한言語와感覺 奇異한象形擬音과奇妙한印刷―이모든것과立體派의 그림이 주는『奇怪』그自身이다

◇

戰亂이 끗난뒤에 아모에게도 알수업는『奇異』한말이 들이엇다 이것은『다다』이다『다다』? 대관절『다다』라는것은무엇이냐? 어데서 생기고 그뜻이무엇이냐? 아모도對答하는사람은업서 그저『다다』뿐이다 입으로 들닐뿐이다 奇々怪々한藝術과『다다』이다 이音調속에 엇더한意味가 잇슬가 말을드르면 이『다다』의保護者며創設者는 프랑스의『아드레, 지드』라고하며 그代表者는『쭐, 모랑』이라한다 그리고엇더한곳에서 엇더케되엿다는것도 몰을 엇다 『다다』에는아모뜻도업다 이語源은 프랑스말의木馬라는 뜻밧게는 아모것도업서 소리만잇는無意味한말이다 그러기때문에 이말을가지고 이말을 標榜하며 自己들의藝術을 나흐라는『사람』들에게만『다다이슴』 또는『다다이스트』가 엇던意味가잇슬것이다 그들의行動과態度로말미암와 『그럿거니』하는 희미한뜻짐을 가지는외 아모것도 正面으로는發見할수가업다 이런말을할수가잇다면 『맑스』노르다우』가아니지만은 『다다』는『世紀末의藝術』이라할수밧게업다 엇던意味로보면『世紀末』이라는말에는 무엇이라말할수업는藝術味가잇다

『다다』의主張은무엇인가?

『다다』는 이럴破壞이다 잇다는모든것에對하야 極端的破壞이다 因習과傳統과모든것에對하야 鐵槌를宣하야 두다려부시자는 旣成의『言語』와文章과表現과 그리고思想까지라도 두다려부시자는『벤델리슴』이다 그들의눈에는 『破壞』가잇슬뿐이요 그밧게는아모것도업다 先祖代은 돌아가는피와지라도 업시하고 오래先祖代代가아닌 새름은피를 그들은願한다 만은 이것은 아모리버려오는모든것을 두다려부시고십허하는 그들에게라도 不可能할것이다 잇는그대로의삶가능이되기를 그들은願하야 矛盾을사랑하는 사람은 다『다다』라한다

文藝의進展을위하야는 破壞運動도必要한것이다 만은 破壞키위한破壞와 建設키위한破壞사이에는 엄청나게 다른뜻이잇다 이意味로보아서 未來派와立體派갓흔것은 한主義로되며 한派流도되야 完成을目的삼아 在來의모든것을 두다려부시나『다다』는그럿치아니하야完成도建設도아모것도目的하는것이업시 破壞할뿐것이다 그것이手段이며目的이다그러기에『다다』는永久한破壞이다 世紀末의矛盾과苦悶도잇슬것이다 만은 그것보다도虛無者의態度와는다른否定이다 모든것을 否定하야 두다려부신다 그들은敏感의心身이다 自己의손가락을 쌔미는어린아기이다

◇

言語는『다다』를 벙어리만든다 더욱所謂『詩的言語』라는것이 참을수업게 그들을 벙어리되게된다 이리하야 그들은 뜻도아모것도업는片語半白으로 自己의새름을表現을 짓는다 『다다』아닌사람이『다다』를理解치못하는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기에『다다』는『다다이다』요 永遠히 異常한『다다이즘』은 『다다 일것도갓고 다다롭은것도갓든』 수수꺽기이다 過渡期의旣成品에對하야 反叛的精神을가진『벤델리슴』이다

『다다』派의詩歌의特色은 在來의言語의感覺과槪念을避하기위하야印刷의配列과文字의大小와不規則한『스텔』로써 言語에는에잘못되지아니하는純實한表現을하라고함에잇서그들은詩的聯想과感情을 멀니한다 純實한새름은表現은旣成語使用으로 바래지아니하고 旣成的言語에서解放되야 다른新造語를쓴다 그러나 그新造語조차 그들의 表現機關이되지못한다 그러기에 모든것을破壞한다

『다다』는 『다다이스트』로는意義가업고 『다다이즘』으로는아모리한意味가업고 『다다』는單純히두다려부시자는永久한破壞事業에 지내지아니한다

歐洲戰亂뒤에 생긴藝術은 偉大하고 奇々怪々하다 世紀末的『벤델리즘』의藝術이『다다』이라면『다다』諸君은 經驗가이다 만은『다다』아닌것은 모도다『다다』라고하는意味로보아 世紀末的『벤델리즘』의藝術은 分明한『다다이즘』이며『다다이스트』아닐수가업다

一九二四, 一一, 一五

나무리벌노래

흰 달

新載寧에도 나무리벌
물도만코 나무리벌
여조흔곳
滿洲나奉天은 못살고장

왜 왓는냐
왜 왓드냐
자곡자곡이 피땀이라
故鄕山川이 어듸메냐

黃海道
新載寧
나무리벌
두몸이 김매며사랏지요
올벼논에 다은물은
츠렁츠렁
벼자란다
新載寧에도 나무리벌

車와 船

車타고
서울가면
금상님 게시드냐
車타고 배타고
東京가서
금상님 게신곳에 뵈옵시다
이제다시 타게되면
北으로北으로 露西亞의
옷파발奉拜次 가브리라

俚 謠

감장치마 흰치구리
싸릿돌에 맛발이기
움물길에 나지마라
鯖魚색기 놀러리라
감장치마 흰고리라
오막집에 맛맨누리
밥불일낭 깃지마라
중그마리 놀나리라

脫鄕記

晉州太守

집을떠나자 그리하야 이런 버린나를찾자―

이것은 나의 배업시 불으는 설은노래다 어두운 가을밤에 나는 이노래를 불으고 옛번이나 혼자서 안탓가워하엿스며 쉬어서 울엇는가 마음은 病들고 쌔여젓다 봄날에 쏫은피여도 나의설음만은 매치고 쏫우에 아지랑은 쉬여도 나의괴로움만은 풀니지안는다 世上에단지 二十一年에 捕虜가 二十一年이다 詛呪가 二十一年이다

그러나 二十一年이란 歲月이 決코 그러케 짧은時間은아니다 어서 집을떠나자 그리하야 이러버린나를찾자―

두번이나 逃亡하다가 도로붓들녀오기도하엿지만은 그래도 逃亡하자 또한번 逃亡하자 더한층 徹底한方法에서徹底한마음을 가지고 決死的의 行動을 取하야 멀니々々逃亡하자 前에는逃亡햇다가도 다시 올나고햇지만은 今番은 決斷코 다시 잡혀와서는안된다 멀니집을떠나야만한다 爲一그래도 그들이 듯지안코 또쳐와서 前과가튼 無理한 威脅을하거든 이와가치 바로말하여라―내몸은 당신들이 安配할權利는업습니다 至今까지의 당신들의게 하야오든 모든 橫行時代는 벌서나의몸우에서 사라지고말엇습니다 그支配라는것은死刑이나 조금도 다름이업는것을 나는 잘암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아들사리와 종노릇을 그만두엇습니다 다시말하면 나는 決斷코 나의 汎々한一生을 犧牲하야 당신들의 機械노릇을하지는안켓습니다 나는 至今 이러버린 나를 차지려가는 방분길입니다 하고 성을내여서 소리처말하여라 그리하야 다시는 그暗한窟속에서 무서운捕虜의宣告를 밧지마러라 詛呪의눈물을 흘니지말어라 푸른하날에서쏘는뜻한太陽은 無限한慈愛의光線을 가지고 기다린지가오래다 떠드러말할것도업시 너는 어서밥비 너의 빈몸진속에서 굿세인個性을 차저내여라 주먹을 불근쥐고 장단을하여라 그리고 누가 너의게 父母가 잇느냐고뭇거든―나를 젓먹이고 밥먹여서 길너준이밧게는 업다―고 快活하게 對答하여라 그리고 또工夫를 햇느냐고뭇거든―열네살에 普通學校 二個年을 다니다가머리를깍고 아버지의게 酷虐한매(苔)를마커서學校도 가지못하다가 어느김흔川中으로 눈보래치고바람처불든 겨울 어느날저녁(夜文)한卷을 들녀서 또처보내드라―고 너의쎄웃마다 숨어잇는 그잔설은 이약이를 모조리 말하렴으나

비소리

黃永性

새벽잠이얼푸시 쌔자말자
구슬흔비소리가 窓틈으로들녀요
설은꿈에 헤매인 어린가슴이
밋쳐 安然하여지기도전에
이비소리 구슬흔비소리가
이럿케이럿케도남의애를만는고
병아리우름소리가치
窓밧게떠러지는 방울방울의비물은
가슴속에 붓는불을 잠아쉬라고
나의눈에 소사나는 눈물이어라
아―비소리 구슬흔비소리
남의애를끈어내는 새벽비소리

그리고 또장가를 갓느냐고뭇거든―어느해겨울에 늙은만아버지를 따러서 白馬우에藍色元衫을입고生前에 보지도못하든집에가서 낫모르는색시와하로밤 잠을자고온일밧게는업슴니다 그런뒤에 그색시는키의아버지를 따러서 우리집으로 왓섯답니다 우리父母들은 그의게 밥식여먹고 옷지여입는것을무한이 자미로알담니다 그런데 엇더한일인지 그는 나를 보면은 붓그러워서 작고숨는답니다 그리고 父母들은무슨말인지『孫子가섯다』고 매우거정합니다 그리다가는 나의게 直接으로그말을하기도한니다 커다마다 그색시와가치자라구요 남들은모도다 그색시를나의안헤라고 불으지요 그러나 나는그색시를 나의『父母의메나리』라고 밧게는더 생각지안슴니다―라고 눈물을흘녀서말하여라 그리고 그우에 더仔細하게 뭇거든목마처서 더말하지못하겟다 고하여라 너도 아는바와가치 네가처녀마다 잠을 이루지도못하고 無限히괴롭히면서그지내온 모든殘忍慘酷한일을 生覺만하야도 너의불상한靈은 설머서소리도내지못하고 흘적々々々늣겨울지안는냐? 너의가삼은 두근々々뛰지안는냐? 그리고 어내서 오는냐고 뭇거든나를 밥먹여주고 옷입혀주든이의집에서 일해주며 자식노릇하다가 넘어나집이 무거웁고 하기가실혀서 몰내逃亡해온다고 울면서말하렴으나

×

아―불상한 길손이여 어데로 갈거나 갈곳은업다 그러나집은떠나야만한다 그리하야 이러버린나를차저야만한다 二十一年의歲月이 決코 짧은時間은아니다

아―그러나 父母를발코 안해를발코 家庭을발코 웃헤가서는오직하나인 나의自身外지도 이러버리고 홀노히 어데로갈녀고하느냐 아―孤獨이다 悲哀다 모든것이 다虛無이다 나의게는아모것도업다 어두운밤 바다ㅅ가에는 찬별들만 깜박거린다 검은물결은 치미러오고 모진바람은 닥처분다 어느곳에서 달은뜨느냐 쏫은피느냐 어느곳에서 사람이사느냐 定處업는발길은 누가 기다리는이가잇느냐 업느냐 잇거든 잇다고말하여라

×

아들아! 그것은 너의게 넘어나 섧은노래가아니냐 慘酷한말이 아니냐 엇지하야 너의그쏫갓흔입에서 그와갓치 설은노래가 나오느냐 불상한소리를하느냐 아―불상한 아들아 二十이 나이―情들고 恨집흔 나의집을 버리고 어대로가느냐 世上은 차더라 社會는 어둡더라 北國은 넘어나 츱고 南國은 넘어나 더웁더라 어데로갈려고하느냐 어대를가던지 부대몸만은 충실하여라 그러나 너는父母를怨忘하고 妻子만을 눈흘겨보지는마러라 그것들은 모도다 時代의産物이란다 時代의 象徵이란다

×

가삼속에서 무거운 불덩어리가 쏘다커나왓다 破壞다 불이 썰―것케달은 鐵棒을 들고소리를질너라 부서라 산々히 써려부서라 그리고는 建設이다 쳣재분한 그時代가 지내거든 어서 그거츤터우에 새집을지여라 벽돌보다도 더아름다운玉보다도 더쌔끗한 사람의情과愛로써

그러면가자 어서가자 뒤도도라보지말고 어서가자 그리하야 될수잇는대로 짧은人生에게서 아름다운生을만히經驗하야보자 二十一年의歲月이決코 짧은時間은아니다 마주막으로 집을떠나자 그리하야 이러버린나를찻자 機械의아들을 버서나서 사람의아들이 되야보자

―金弁의日記에서―

巡 査

巴 人

「배라먹을놈! 이녀석들!」하면서 왼웰쭐문 밋치팽이녀자가 빗를거리며 [illegible]지날때 우뚝허니서서 把守보던巡査가 얼는내다라두팔을붓잡는다

「왼게집이야응?」

그는눈을부르대며

「이녀석! 에잇싸 가키사마!」

巡査는 또팔을잡는다 그리다가 엽작놀나몸을흴뜻는다 나붓기는바람결에번건 김흔다리가보엿슴으로

바람이 또분다 우뚝허니섯는 巡査의外套자락을 날리면서밉살스럽게도 여윈狂女의고기를더더집히들추면서

◇저녁때 · 피카소作◇

이그림을보면 飮食店한귀퉁이 食卓하나를 男女둘이 차지하고안즌것이다 그네얼굴을보와도 주림에쪼들고 世上에모―든괴롬이란 다―當해본痛苦이드러난다 테블에는 비인麥酒瓶과 허바닥자죽이난접시와 그러고말너부스러지고도 남은『면보』덩이가잇다 외로옴과설움은 그네의두形體를얼사안엇다 그러나 女子는녯날의回想과 그래도떠러질수업는 엇더한다른것을 바라는듯한表情이드러낫고 男子는自己와 아니「自己로서는 이세상에서엇지못할 그하나의주림을생각하고 左右에食卓를건너다보며 그네둘의 幸運을 부러워하는듯한表情이할드러낫다 엇잿든 過渡期에잇는 불상한生活者를 그린그림이다

軍縮會議詳細

[illegible]氏가發表豫定

…의第二回軍縮會議開催를希望 에辭明한것은 [illegible] 一, 辭職하던라倂한國務卿『[illegible] 氏가發表…軍縮會議에關 [illegible] 하다이라더라(紐育二十一日發)

…가第二回軍縮會議開催를主張하야 遞信運動에着手하기를主張한 [illegible]

又는線路區間의一部切換整理等에依하야市外通話에適當한區間을調査하던바二十二日부터地方主要地間四十五區의市外通信을 [illegible]

馬山光陽間同六十錢同三十錢
釜山長湍間同六十錢同三十錢
木浦接梧間同六十錢同三十錢
[illegible]

米豆週觀

今週는初에三十四圓○三錢에 初付하야 [illegible] 高價를보이고 [illegible] 九丁의低落을示하엿도다前週에 第二回收穫豫想高收로因하야騰 [illegible] 以後鈍하엿슴으로 [illegible] 가一般의觀測하던것보다多量이 [illegible] 給不足을念慮하는等이其主計는 [illegible] 하며眞正한理想인지는元來未知 [illegible] 仁川 三十三圓三十五六錢 [illegible]

主婦되는날

主婦되는第一日에念頭에둘것은 健康의糧食中將湯을恒常座右에서써나지안토록―健康이야말로家庭圓滿의第一條件!

冷症을完全히防止하고 補血體溫케하는中將湯을 常用하시면婦人特有의不快한病에걸닐念慮업고氣分도淸快하게됩니다

中將湯

主効 子宮病, 血의道, 白帶下, 腰足厥冷, 下腹痛, 頭痛眩暈, 肩凝때리―, 月經不順, 不眠症, 産前産後, 惡阻

定價 [illegible]

處方調劑 新藥賣藥 化粧品

本店 東京市日本橋區通四丁目 津村順天堂
支店 大阪市 [illegible]

丸ノ内ホテル 東京驛前

從來, 東京驛前에는旅館이업섯는데, 一昨年來驛前에「호텔」建設을起工하야, 最近에竣工되엿습니다, 大震災의試煉을밧은後, 絶對安全을자랑할만한一大賞遺物로되엿습니다. 本『호텔』은無用의形式을避하고, 有用한設備만하엿슴으로, 從來의「호텔」과는달라서奢侈스럽지아니하고, 居處에便利로록되엿스며, 茶代等의弊端스러운費用이업는, 低廉한旅館이올시다. 請컨대愛顧하시압소서

ホテル內容
室數 貳百室(宿泊料 四圓五十錢, 六圓五十錢, 十圓)
暖房裝置 溫水暖房
浴室 (外에別十四圓五十錢)
朝晝夕食 和洋兩樣式으로各階에設備
朝食 和洋共 七拾錢 (七時부터九時外지)
晝食 和洋食 壹圓貳拾錢 (正午부터二時外지)
夕食 洋食 壹圓六拾錢 (五時以後)
定食以外何時던지一品料理도調應합니다 (食事는隨意)

◎第十一月二十三日부터
國際時報 全一卷
人?鬼? 全二卷
女性을爲하야 全八卷
다니엘풍 全十五篇
團成社 電光九五九

十一月二十三日부터
悲戀의山 全七卷
朝鮮劇場 電光二〇五

不景氣來乎!
來年은十一年만의丑年 凶作의週期
開運의羅盤針!
如何히難關을定할가 方針을 失敗前에!

◇吉凶活斷◇

四柱運勢大鑑 (易者不要)

▼いろは [illegible]
▼人生一代의運勢와 年月, 日日의吉凶
▼只今하는事業은조흔가? 나쁜가?

賞用券 三世相寶鑑

正文社本店

제ー다스아디가다
タカヂアスターゼ
(見博士高峰許特賣專)
世界的强力消化素
(1)消化不良으로因하는모든胃腸疾患(2)無力性胃弱者(3)結核及其他慢性病者(4)重病恢復期等에……治療藥으로또胃腸의消化機能增進藥으로全世界醫家에게賞用됩니다……
(T-16)
三共株式會社 東京室町

金 特別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壹丁目
德力本店 京城出張所
電本 二一二四 二五七二 二〇八八 番

ClibPDF - www.fastio.com